

◇ 特別寄稿 ◇

東 崇 神 遊 錄

安 東 赫

이 글은 日本人 同門後輩들을 위하여 日文으로 쓴 노트를 편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直譯한 것이다. 원래 공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1) 우선 시작으로

나는 1970년 여름, 교과서 집필중 바른쪽눈 網膜出血이 되어 의사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별로 관심을 안두고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1972년 6월 6일 腦血栓으로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5년쯤 걸려서 이리저리 養生에 힘쓴 효과이었는데, 3년전부터 회복되어 대강 原狀에 가까운 몸이 되었습니다. 눈도 나았고, 체력도 10km 정도의 하이킹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自然衰弱은 否定 못합니다.

금년 9월에 이곳(서울) 韓國엔지니어클럽에서 나이 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잔치를 벌였기에, 나가서 보니 얼마 안된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게다가 거의 忘却되어 있어, 故人들에 대하여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후 主催者의 요구에 응하여 간단한 감상문을 쓰고자 붓을 들어 보니, 無數한 고인들의 모습이 떠올라, 漫然코 시작한 것이 꽤 많은 분량이 되었고, 內子의 잔소리도 있어 우선 끝을 맺어, 參寥神遊錄이란 편명을 붙여서 내놓았습니다.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2 권 제 1 호 1980. 12)

元來 나는 방안에 틀어박히는 習性이어서 社交는 서투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親交가 있던 이름을 남길 만한 고인이 2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는 中央試驗所, 京城工業學校, 京城工業專門學校에 관련된 분들도 많고, 앞에 말

한 雜話는 저절로 東崇洞을 出入한 日本분들과도 얽혀져 있기에, 東崇工業會名簿(在日本)와 中央試驗所在職者名簿, 그리고 所持의 京城高等工業學校 同窓會名簿와 全一覽, 서울工業高等學校와 서울大學校工科大学의 同窓會名簿를 뒤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란 것은 記憶만에 의거하여 만든 것의 不備이었었습니다. 日本서 만든 명부의 보충, 그것도 東崇工業會쪽은 特別會員 부분만 1941년 6월 30일까지 거의 正確, 中央試驗所 것은 1940년 12월 31일까지 幹部級은 確實한 보충인명단을 稻垣春雄군에게 보냈습니다.

이들 세 機關의 由來, 歷代 所長, 校長과 주요職員들의 변모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섭섭하기에, 우선 메모를 만들어 두기로 하였습니다. 中央試驗所쪽은 年報, 報告가 거의 완전히 남아 있지만 두 학교의 校友會誌, 各科會誌, 要覽, 同窓會名簿 등은 前記한 내 소장품 외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兩校의 25週年紀念 校友會誌는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않고, 中央試驗所 25年史稿는 내 草稿와 더불어 燒失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나는 병이 나기 전에 서울大工大化學工學科 同窓會員을 위하여, 그 前身이라 할 만한 京工, 京工專 및 中試의 由來와, 특히 京工專 應用化學科會이었던 斗星會員으로서 先生님들과 한국인 선배들 중에서 故人이 된 분들의 인상을 그 同窓會誌에 썼습니다. (拙著「殘像」收錄: 三山隨緣錄, 특히 斗星師友行狀記)

다른 科나 日本人 諸君에 대하여서는, 그 事情에 어두우므로 言及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래

된 일들에 대하여는 高原知義, 神戸漢, 竹内恒治, 吉田寛一郎 등 여러분이 건재하여 있고, 終戰 전후의 사정은 多士 아식 健壯한 지금, 곧 기록을 취해 두는 편이 좋을 줄 여겨집니다. 이는 역시 좋았던 또는 그렇지 못했던 간에 우리들의 뿌리의 한 부분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 拙文은 交遊를 베풀어 주신, 대다수는 故人이 된 職員 여러분과의 사이의 낯익은 이야기입니다. 돌아간 분들에 대한 公式의인 顯彰은 따로이 그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고, 또 이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나는 이 나이에 와서까지 지난 일을 粉飾하는 짓을 참을 수 없습니다. 패나 제멋대로이고, 더우기 죽은이가 말 못하는 데 들어덤비는 꼴사나운 짓도 되지만, 자기의 기억을 그대로 피로하는 쪽이 좋다고 여기면서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혼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山속을 바쁘게 쏘다니는 다람쥐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분명한 目的意識을 가지고, 平生을 살아가는 일은 일반 生物에는 없습니다. 다만 人間은 때로는 자기의 生과 그 활동을 吟味하고 따져볼 적이 있습니다. 故人들의 대부분은 이런 쓸모없는 心理的 苦惱 따위는 배어 버리고 억척같이 살고 돌아간듯이, 表面上으로는 보입니다. 비록 그랬다 해도 이 분들과의 相關關係에서 자기의 生은 營爲되었으므로, 그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꼬리를 남기는지를, 되새겨보지 않고는, 自己도 喪失하는 까닭에, 이는 自己를 위하여, 그리고 故人과도 상대적으로 요긴한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幽明을 달리하여 對話가 끊겨 있어도, 自己 속에 남겨져 있는 고인에게, 지나간 歲月을 달리 말해 보고, 그 후의 理解의 深化를 보고 드리는 일은 許容될 만하기 때문입니다.

(2) 典圖局

나는 中試, 京工, 京工專의 發源을 典圖局에 다 求하고 있습니다. 이는 歷史家에게는 理解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까닭은 各機關의 創設기록에는 전혀 이런 점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典圖局은 1883년 7월13일(음력) 高宗 2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1894년 甲午 更張에 즈음하여 更新 확장되었습니다. 更張이란 專制王國의 維新 또는 근대화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결과로 따져 보면 更張은 淸日戰爭을 시작한 제국 일본이 조선왕국에다가 패권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못했으며, 王朝의 自意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典圖局은 이 근대화정책의 한가닥으로 만든 것으로서 일본의 造幣局과 內閣印刷局을 합한 것과 비스듬한 기관이었습니다. 그 시설과 기술은 일본의 독점제공이어서 藏前高工(東京工大의 前身)이 기술자를 공급하였습니다. 典圖局은 시초부터 어물어물 움직여, 잠깐 硬貨를 내보았다가, 불도 내고, 濟物浦 日本人 거류지로 옮기기도 하고, 두루두루 낭비를 거듭한 끝에, 1904년 폐지되고, 그 업무는 日本이 대행하게 되고, 시설을 나누어 놓았는데 그 대부분이 뒤에 생긴 工業傳習所, 이어서 얼마후에 中試에 전해진 것입니다.

요컨대 이는 총을 한발 앞서서 만진 일본이 퍼낸 연극의 한도막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아마 伊藤博文公爵 등이 맨처음부터 이러려고 저지르지는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어린애기 새끼손가락을 비트는 짓과 같은 형편없는 장난이 되어 버려서, 까닭도 모르고 藏前을 갖 줄 업하고 뛰어난 更田信彌先生 등에게는 진짜로 기분나쁜 일이었습니다. 원래가 傑物이란 것은 時代의 바람을 타고, 교묘하게 연극을 해 내는 작자로서, 과연 이 술책의 達人인 삼국지의 曹操도 『時務를 인식하는 자가 곧 俊傑이다』라고 自白한 정도이므로, 무슨 定見이 있는 자는 이 축에 못끼는 법입니다. 그렇다 해도 연극을 잘한 덕에 죽음을 당하는 일은 칭찬할 바가 못 됩니다.

(3) 三機關의 시작과 그 變遷

1906년 大韓帝國 정부는 工業기술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工業傳習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그때의 農商工部大臣 權重顯씨는 統監部の 주선으로 藏前의 교수 平賀讓二 工學博士를 초빙하여, 10월에 立地를 물색하여 東崇洞의 위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즈음 이곳은 蓮池와 果樹園, 그리고 松林 사이에 點在한 油草과 덕마신을 만드는 갖바치 집단부락과 인접한 閑靜한 곳이었었는데, 工業技術과 인연이 있다 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25주년 기념식전에서 兩校에서 權子爵을 초청하여 당시 이야기를 듣고, 그 속기

목을 기념지에 실었습니다. 權씨는 운수 사남제 5逆(日本の 覇權승인문서에 署名한 閣僚)의 하나로 그 이름이 나열되어, 그 생전은 물론 千秋에 汚名을 남겼습니다.

工業傳習所는 맨처음에는 染織, 陶藝, 金工, 木工, 應用化學의 6과이었습니다. 그런데 同窓會員 명부에는 1908년 3월에 土木科졸업생 6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유는 1906년에 이미 商工學校가 설치되어 있어, 그중 工의 부분이 전습소로 移管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왜 土木科만이냐 하면, 이는 그때 마침 土地家屋證明規則이 公布되어, 급하게 測量師가 필요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뭏든 1912년 염직과를 나온 韓辰範씨가 돌아가셔서 이런 때는 좀 아쉽습니다. 이즈음에 典圖書 元 직원(日本人)이 다시 조빙되고, 所長에는 森昶씨가 되고, 更田, 吉田四郎, 高橋新十郎, 德久興市, 貞包, 山本 등 여러분이 指南役이었습니다. 德久씨의 令息, 山本씨의 아들도 終戰후 출세하여 훌륭한 官僚가 되었는데, 나는 그 한분의 著書「研究管理」를 읽고 크게 참고가 되었습니다.

1905년말에 韓國統監部가 설치되어 鑛物分析室이 생기고, 여기 역시 藏前卒의 中川虎太郎씨가 부임했습니다. 1910년에는 朝鮮總督府가 됩니다. 그리고 1912년 4월1일에 中央試驗所가 설치되었습니다. 應用化學, 染織, 窯業, 그리고 前述한 分析과 衛生, 그밖에 財務局系의 釀造 등 부문을 주위 모아서, 별다른 地方조직도 없는데도 中央이란 모자를 씌웠습니다. 아마 이名稱은 台灣을 비롯하여 南滿洲鐵道(株), 樺太에서 벌써부터 쓰고 있던 것으로서, 그 시절에 일종의 관청의 체제통일로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工業傳習所를 여기 附設로 하고, 그 正面建物을 헐고 木造 本館을 짓기 시작, 1915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금년에 保存文化財로 指定되었습니다. 中試의 설치목적은 工業技術指導와 資源開發입니다. 전자로는 製紙나 機業기술의 講習, 養成을 시작하여 全國의으로 어느 정도의 업적을 이룩했지만, 후자 쪽은 대수로운 성과는 없었던 것인 줄 여깁니다. 당시에 눈독을 들인 資源은 鐵鑛, 黑鉛, 金鑛,

無煙炭, 木材, 石灰石 정도로서 벌써 외국개발 사업이 개미떼 같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中試 창설사무는 우선 森傳習所長이 보고, 이어서 勸業模範場(現 農業振興廳 前身)의 豐永眞里農學博士가 初代所長으로 任命되었습니다.

1916년에는 京城工業專門學校가 창설되어, 우선 中試에 附設되었다가, 곧 併設로 독립시키고, 전습소는 工專에 附設, 所長이 두 교장을 겸임하였습니다. 1922년 京城高等工業學校로 改稱, 1940년에는 그중에 鑛山科를 분리하여 鑛山專門學校가 설립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理科敎員養成所가 부설되었습니다. 1942년에 다시 京城工業專門學校로 改稱, 부설 理敎는 京帝國大學에 移管되었습니다.

工業傳習所는 1922년 官立京城工業學校로 改稱, 이와는 따로이 1938년 된 京城公立工業學校와 1940년에 合併하였습니다. 後者の 교장이 伊藤鏐三郎씨로서 京畿中學校에 임시로 있었고, 合併후의 교장이 甲木牧夫선생으로서 1939년 6월에 番大方洞 新校舍로 이전한 것입니다.

이들 세 기관의 本格化는 1919년 三山喜三郎 工學博士가 所·校長으로 부임한 때부터입니다. 三山박사때부터 인사관계의 잡음은 꽤 오래 構内에서 연기를 내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東大의 진출로 藏前이 밀린 것입니다. 대학출신이 아니고는 勅任(지금 1·2급·공무원)이 못되는 시절이어서, 아무리 力量이 있는 藏前출신도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즈음에 中試는 農産加工 정도나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을 三山박사가 와서 氣機化學部를 만들기도 해서, 그보다도 젊은 學士洪水로 別안간에 活氣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 1차世界大戰에 따른 景氣好調의 餘勢에 지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京工專도 1922年 土木, 建築, 鑛山の 새 과가 생기고, 종전의 窯業은 응용화학과에 一色染도 여기다가 포함시키고, 염직은 紡織으로 개명하였습니다. 京工은 1916년에는 木工, 金工, 織物, 化學製品, 陶器의 6과로 되고, 다시 1922년에 建築, 機械, 機織, 應用化學, 窯業의 5과로 개편하였다가, 1940년에 鑛山, 土木, 電氣를 더하여 8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체로 학교쪽은 安定한 편이지만, 中試는 時勢의 동향에 민감이어서, 늘창 뒤뚱 뒤뚱 동요를 거듭하여, 그것도 惡化一路로, 잠시도 편안한 날이 없는 형편이기에, 내가 試驗所에 들어갈 무렵 西川九藏선생 등은 걱정에 찬 기분으로 말렸을 정도였습니다. 新進氣銳의 學者인 三山所長은, 당시의 고위층으로부터 大大的으로 해보라는 指示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상당한 言質쯤은 받아 가지고 來鮮을 決行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東京工業試驗所에는 先輩로 위가 막혀서 出世길이 더딘 것도 動機의 하나이었겠지요. 이때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世界恐慌과 不景氣에 휩쓸렸는데, 그때는 不景氣는 神의 섭리로서 人力으로는 도리가 없고, 緊縮 이외에는 아무런 쓸 손이 없다고 여겼었습니다. 이 진축에 제일 弱한 것이 試驗研究기관입니다. 中試는 이 시절에 連打를 받아 渾연히 電氣化學部가 날아가고, 衛生, 釀造 2부도 옛고장으로 도망하고, 조금 뒤에는 分析部마저 떨어져 나가서, 1930년 山村銳吉소장이 부임했을 적에는 겨우 간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933년에 이르러 이 看板까지 빼어내게 되었다가, 겨우 위기일발에서 폐지를 면하였습니다. 이해에 나는 京工敎諭에서 中試技手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간부는 山村소장, 玉井倚生屬 庶務主任, 化學工業部에서는 내가 主任, 安田邦譽技手, 染織部는 主任이 村松宗次技師에 近藤達雄, 荻尾季雄 두 技手, 窯業部가 主任 大橋武夫技手와 吉田寛一郎技手 총 9인이었습니다.

오랜 불경기에 일본은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滿洲事變, 北支事變, 支那事變 등 局面이 선화하면서 조선의 위치가 주목되자 中試도 이에 편승하여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工藝部, 電氣化學部가 생기고 所員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終戰후 中試는 中央工業研究所, 國立工業研究所, 지금은 國立工業試驗院으로 변했고, 그 위치와 本館은 그 전대로입니다. 작년봄부터 冠岳山の 東南麓에 매머드廳舍를 건축중이어서, 1982년에는 이전할 예정입니다. 京工專은 1946년 서울大學校 工科大學으로 京鎭專과 더불어 綜合되었고 1955년경부터는 孔陵洞의 舊京城大學理工學部와 京鎭專 校舍로 들어갔다가, 금년 봄에 冠岳山北麓 綜合캠퍼스로 옮겼습니다. 京工은 1946년부터 서울公立工業高等學校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 豐永眞里博士

나는 豐永眞里 初代所・校長을 뵈은 적은 없습니다. 圖書室에 備置되어 있던 30cm쯤의 石膏像을 본 분은 지금도 꽤 있을 것입니다. 아마 講堂에는 사진쯤은 걸렸을 법하지만, 三山博士 것은 확실한데, 豐永博士 사진은 생각 안납니다. 이 胸像의 인상으로는 훌륭한 체격으로 威風당당, 장엄한 카이저 수염, 그 직함에 맞는 듯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셨던 분들의 이야기로는 쇠약한 老人, 그리고도 늘 앓고 있어, 거의 視務도 못하였고, 요양하기 위하여 귀국 중 돌아갔으므로, 그 후임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려, 그때에 총독부 사무관 生田清三郎씨가 사무 취급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의 中試報告는 小麥의 品質검사, 왕겨麵子 제조법, 풍구의 개량, 야채나 과일의 加工 등 農産加工적인 것이었습니다.

(5) 三山喜三郎博士

三山喜三郎 2代所・校長은, 6尺 가까운 거창한 몸집, 피부는 희고 팔막하게 짙은 콧수염과 머리, 아주 씹씹하고, 목소리는 좀 끁끁대지만 옥타브가 높고도 빠른 江戸사투리에다가, 江戸기질이어서 성미가 급하고 여차직하면 주먹이 먼저 나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면 아주 무서운 사람 같지만, 실상 마주 앉아 보면 의외로 好人, 상냥하고 理解心이 많은 人情味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一高서는 數學에 특출, 그러나 이것으로 밥이 안생기니까 東大工科에 들었던 거야.』라고 側近에다 述懷했다는데, 傳聞한 나도 共感이 있기에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禮式日에 저 金빛 나는 大禮服을 처음 보고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막 16세가 된 少年이었으니. 더우기 드물게 듣는 講話의 內容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모두 生徒적 이야기입니다.

재학중 上급생으로부터 교장배척 스트라이크 사건을 들었습니다. 대개 스트라이크의 원인은 複合的이어서 여러가지 감정이 쌓인데다가, 간단한 우발사건으로 起爆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雷管은 교장선생님의 주먹이 書記의 대머리 위에 닿은듯이, 유리창 너머로 학생에게 보인 것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의 해명으로는, 이

는 전혀 잘못 본 것으로서 사실인즉 머리가 둔한 서기에게 손짓으로 理解를 도왔는데, 視差로 誤解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는 증거불충분으로 해소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博士님과 나는 처음에는 학생, 나중에는 下僚이었는데, 여기서는 公式的인 일들은 빼고 일체 닥치는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습관의 차이로 생긴 당황한 1例. 내가 대학생적에 선생님께 인사차 뵈었는데, 石井市重郎선배와 함께 진고개로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電車를 탔습니다. 차장이 차표를 내라 하기에 나는 무심코 표 3장을 냈습니다. 이는 한국서는 어른이나 선생님에 대한 의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자리에서 찢절매어, 不安한 얼굴에는 흉하게 찡그린 미소를 짓고 제십니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해서 石井선배가 내 옆구리를 찌르면서 속삭여 주어, 나는 최경례를 하면서 선생님 손에서 표 3장을 받아서 차장에게 가서 내것과 바꾸었습니다. 이 일은 선생님이 소문대로 조급한 분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다른 寸劇의 하나로, 내 취직시에 자질구레한 사건. 나와 고 尹柱福군(京工專에서는 紡선배, 中試서는 前任技手)과는 同期로 九大應化를 졸업했는데 불경기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恩師 寺野寬二박사는 우리 두 사람을 데리고 몸소 서울로 와서 三山박사에게 強賣하셨습니다. 三山박사는 곧 中試 기수와 京工 교유 각 1석을 마련하여, 尹군이 中試쪽을 先取하고 나는 남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령장이 나오기 전에 선생님은 나를 부르셔서 애처로운듯이 모기 같은 소리로 『자네 장래는 약속할 수 없네. 그래도 괜찮은가?』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는 물론 일종의 宣告로서 나는 그때 몹시 화가 났지만 權力者에겐 뵈죽한 수도 없고, 西川교수의 권고도 있어서, 이 附帶條件을 삼켰습니다. 尹군은 그후 中試의 위기에 활동하다가 實業제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대로 주물러 앉았었지만, 선생님의 豫見이 的中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先生님의 친절과 솔직한 성품이 잘 나타난 것으로 여깁니다. 그 시절에 客觀상태로서는 그 忠言은 참말이었

습니다. 그렇지만 人間, 아니 모든 事物의 未來는 豫見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과학기술자는 가끔 너무 고지식해서 탈입니다.

선생님은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한 분이어서, 그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흔히 逆反應을 일으켰습니다. 술이나 놀이는 일체 없고, 매년 한 차례 合同宴會는 늘 純形式的인 洋食으로서, 될 수 있는 한도까지 最高速度로 식사가 진행하여, 천천히 드는 나는 아깝게도 한접시쯤 설치게 됩니다. 메인 테이블에서는 벌써 홍차, 즉각에 소장인사와 대표사사, 일사천리로 깎박할 새에 폐회, 해산입니다. 소요시간 한시간 内外. 들은 바로는 초기에는 和食집에서 술도 나왔었는데, 그후 派閥싸움이 尖銳化하여 부득이 이 꼴이 되었다는군요. 그렇다면 그만두면 좋을 상 있는데... 이 행사는 관청의 관례여서 예산집행을 안할 수도 없고...

결들여 또하나 뱃속에 묵어 있는 화 하나를 끌어낼까 합니다. 中試에는 가끔 外人이 구경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총독부外事課에서는 안내역을 대동하여 간부급을 긴장시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고 張基命군의 방에 들어가서 자개칠그릇 제작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 外人들과 소장 이하 간부들이 들어왔습니다. 外人들은 螺鈿을 신기하게 여겨 『이게 무엇이야?』고 묻지만 洋行에서 갓 돌아온 小山一德교수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알아들었습니다. 외인은 “Oh, printed?”라고 고개를 가우뚱하기에 나는 참기 어려워져서 “No, inlaid.”라 해 보아도 不通, 그래서 機智를 발휘하여 “Shell mosaic.”이랬더니 즉각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간부들은 『자네들은 어학에 능숙하지.』하면서 일부러 들자를 써서 人種의으로 칭찬한 뒤부터는, 가끔 内外귀빈 안내역을 맡기고, 入所후는 아시다시피 專用案内員이 된 것입니다.

東京의 特許局 化學電氣部長으로 전임하기까지, 三山소장은 밖으로는 胥吏에게 조련을 받아 해마다 예산삭감의 걱정을 당했고, 안에서는 인사관계로 마음 고생이 끊일 새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즈음 간접적으로 가끔 『자네는 사람속도 모르면서...』라고 화나는 기분을 전해왔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화는 내가 내야 할 만

한 입장이지만, 나는 화번 일이 없어, 아마 누군가가 代用으로 나를 써먹었는지도 모릅니다.

所長, 校長으로서의 선생님은 세 기관의 역사로 보면 가장 큰 일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中試의 운영은 東京工業試驗所를 모델로 삼고, 여기다가 縣立공업시험소를 附加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방침이지요. 이보다도 重大한 일은 저 말썽꾸러기 大學졸의 人材들의 도입입니다. 아마 그 방법에는 무리도 있었겠으나, 그 必要性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아니고는 그만한 人材들이 모여들지 않았겠고, 얼마 안되어 많은 인물을 잃었으나, 中試와 京工專은 永年 그 혜택을 받았읍니다. 전직 전후에 中試가 받은 打擊은 소장탓이 아닙니다. 공황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시절의 世態이기에, 다만 선생님은 學者型이어서 行政官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는데 — 이는 歷代 소장, 교장을 비롯하여 科技系 공통의 결점이어서, 선생만을 책망함은 가혹합니다.

三山박사의 不朽의 業績은 漆의 주성분인 漆酸 urushiol의 발견입니다. 이것은 그후 眞島利行박사, 스위스의 카러(Karrer), 미국의 도슨(Dawson) 등 세계 석학들의 연구를 거쳐 1954년에 이르러 그 構造가 거의 究明되었읍니다. 이 業績만으로도 관직의 성패는 무시해도 별로 영향이 없읍니다. 三山式製漆機의 발명은 별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읍니다.

中試에서의 겪은 일은 결과적으로는 쓴 경험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轉出 후는 그 전과는 판판으로 원만하고 사람을 그리는 순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학생적에 말썽꾸러기로 많은 심려를 끼쳤던 고 金大羽선배(專 鑛, 재학중 독립운동으로 2년형 연도)가 慶北知事로 拔擢되었을 때, 선생님은 대단히 기뻐서 일부러 축하코자 와서, 그가 학생적부터 애용하던 외제 시계를 준 일도 있었읍니다. 나는 정초 세배 외는 데에 간 일은 거의 없었던 줄 여깁니다만, 夫人은 노후 늘 臥病하셨습니다. 슬프게 일로 心痛도 있었던 듯하나, 京城帝大, 종전후는 東大에서 電氣工學으로 令名이 높은 三山教授는 선생의 遺志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三山소장의 命을 받아 칠관계 일에 관여한 분

이 약간 있었읍니다. 그 첫째가 安田邦譽技師로서 3편의 보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黃漆成分은 아직도 끝난단 연구과제입니다. 五十嵐三次 겸임기사는 三山소장이 東京서 데려온 사람인가 합니다. 三山소장은 來任 直前까지 漆器연구에 정진하여 工業化學雜誌에 수많은 보문을 발표했는데, 이 시절에 助手였고 本職은 鐵道局이었습니다. 鐵道에 漆塗裝 기술자는 이상하지만, 차량의 木骨部 방부보존에 漆이 좋다는 생각인 바 — 물론 매우 좋기는 하나 物量과 가격이 문제이나 — 부분적으로 요긴한 데다가 썼다 합니다. 五十嵐씨는 원래 미술계 열이어서 螺鈿칠기의 改良시험을 하여, 그 품질향상, 특히 耐水性, 耐氣候性 부여에 공헌하였읍니다. 오늘날 土產品은 물론, 가구점에 진열된 현란한 螺鈿은 이 試驗의 成果입니다. 工藝面에서도 고 張基命, 고 金鎭甲 양군같은 명인을 지도했읍니다. 長身中肉 굵은눈썹과 검붉은 살결, 그 기만한 몸짓은 江戸男子의 인상을 끼치고, 숨은 장끼도 歌舞伎의 목소리 흉내였읍니다.

安田군은 大阪高工 출신입니다. 1929년부터 1945년 종전까지 여러 가지 일에 동료이었읍니다. 그의 부친이 檢事이었다가 辯護士를 개업했는데, 鑑定관계로 邦譽군을 통하여 부탁을 받아 당치도 않은 裁判所 출입을 하게 되었읍니다. 火災원인 감정으로 재판소에서 인기를 얻은 것도 우스운 일이지요. 이 인연으로서의 大事件은 朝鮮銀行의 全燒原因 감정이었읍니다. 그런데 邦譽군은 그 부친과는 판판으로 아주 조심성많은 사람으로서, 小山선생 옆집에 살면서 妹尾光太郎노인(製紙室촉탁)을 宗匠으로 모시고 俳句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종전 직전에 총독부기사로 영전, 이어서 종전 뒤처리에 고역을 치렀읍니다. 그 시절에 穂積眞六郎 殖産局長이 송환 일본인관계 사무의 총지휘자이었던 까닭에, 부하인 그가 잔심부름을 끝까지 하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安田군은 좀 작은편, 평시에 건강은 대충 좋은 편이었는데 귀국하자 폐결핵으로 돌아갔읍니다. 내 수하에 있던 大阪大출신의 佐伯節雄기사도 그랬는데, 지금이면 감기보다도 고치기 쉬웠는데 아까운 일입니다. 두분의 부인도 작달막하나 다부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三山소장 관계로서는 神谷和一씨가 기억됩니다. 京工專서 有機化學을 담당하다가, 三山박사를 따라서 特許局으로 갔습니다. 나는 中에서 6전쯤 특허를 얻었는데, 물론 辨理士 없이 그때마다 神谷씨의 친절한 助言을 받았습니

(6) 更田信彌先生

1923년 3월 京工專에 입학원서를 내려 갔을 적에 교무주임 奥田定一郎교수(土木)가 면접코자 마주쳤습니다. 그 까닭인즉 무시험전형을 원했던 것입니다. 奥田선생은 키가 큰 훌륭한 체격으로, 좀 무섭게 보이나, 말은 아주 자상하셔서, 서투른 일본말로도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두신문은 응용화학과 주임 更田信彌교수라는 분이라고 하는데, 빠른 東京사투리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東問西答,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좀 살이 많은 큰 몸집, 얼굴은 붉으레하고 눈은 실눈, 수염은 없고 머리털이 얇으며 입술도 얇은 분이었습니다. 더우기 조끼에 굵은 금사슬이 눈에 띕니다. 선생님은 구내에서는 最古參입니다. 會計의 宗像壽儀씨는 풍문에는 그리도 고분고분하여 파리한마리도 못죽이는 순한 남자 같으나, 사실은 黒龍會의 앞잡이인 浪士 安達謙藏(閔妃 시해범의 한사람, 후에 民政黨內相)의 백으로 건너와서, 臨時土地調査局에 근무하다가 高工으로 전직한 사람입니다. 處女 脱兎의 兵書의 비유도 있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짓은 좋지 않지만, 나는 23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고, 회계니만큼 여러 사람과 접촉, 삶은 소리도 듣고, 更田선생한테는 책망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않는 흥분을 모르는 진기한 인품이어서, 그런 큰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데, 어쨌든 나 이로 보아도 更田선생이 더 오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傳說입니다만 更田선생이 옛날 工業傳習所에서 담뱃대를 물고, 하인을 데리고 온(이하인은 점심식사 시중을 위한 것) 학생들에게 한국말로 강의를 하셨다는데, 그래서 선배들로부터 절대로 한국말로 선생님 흉을 보지 말라고 주의도 받았습니다. 선생은 퇴관후 한때 귀국하셨다가 되돌아와서 苑南洞에 주택을 신축

하고 餘生을 즐기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꽤 오랜 세월 친근했고, 그후 부인은 귀국하셨는데 이 두분이 한마디도 한국말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없으니—조금 말마디나 알면 곧잘 써보는 법인데—아마 다만 선생은 오랜 경험으로 눈치가 빠른 까닭이었던가 생각합니다. 日本人은 흔히 괴상한 言語타부 같은 것이 있어서, 中國이나 한국서는 상금을 주어도 현지말을 모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歐洲나 미국에 가서는 조금만 말이 틀려도 붉으락 푸르락 하지만, 선생님은 이 점에서 그렇지 않은 분이어서 내 관정은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선생은 壯時부터 糖尿病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결근, 결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교수가 결강하면 곧 그 시간을 메꾸어, 결교생도를 놀리지 않았습니

다. 1929년 퇴관하시자 나는 그의 油脂部門을 물려받아 종전까지 담당하였습니다. 여러번 교무주임, 그리고 藏前の 長老格으로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에게는 子女가 없습니다. 내가 졸업후 가끔 댁에 가서 거리낌없이 놀러붙어서 당치 않은 소리를 지껄여도, 두분은 늘 재미있는 듯이 귀를 기울여 조금도 귀찮아하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어느날 나는 西村眞琴박사의 民俗學을 읽고 크게 감격하여, 선생님댁에 가서 日本의 종교와 민속을 짚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주는 『이건 재미있군』을 連發하면서, 흠족히 술상을 보아 밤늦도록 열을 올린 일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인은 집을 정리하고 귀국했으나 가끔 돌아와서 舊交를 거듭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전쟁전이었습니다.

선생은 中試보고에 製紙原料調査 및 試驗報告의 한편을 남겼습니다. 아마 선생의 단 한편의 저작인가 생각되며, 이 분야에 대한 여기서의 최초의 참고가 되는 문헌입니다.

(7) 甲木牧夫先生 京工의 사람들

構内에서 更田교수와 甲木牧夫교수와는 물고기와 물과 같은 가장 친밀한 사이입니다. 물론 甲木선생이 藏前の 후배로서 教員養成所출신입니다. 甲木교수는 佐賀의 士族. 키가 큰 바싹 마른 몸매, 入歯多數, 변론엄정, 교육가의 풍모를具備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선생님한테서 石油

工業을 배웠는데, 이상한 것은 다른 선생의 강의내용은 거의 잊어 버렸지만, 그때 들은 우물과는 이야기, 그리고 고무工業에서 지루한 베버(Weber)의 연구—이것들은 아마 선생님이나 물론 나도 실지로 본 일도 없고, 써 본 것도 아닌데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음은, 잘 준비된 익숙한 교수법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大卒후 선생님의 下僚가 되었습니다. 그즈음 京工은 교무주임이 교장격이어서 小山교수도 여러번 복무했지만, 내가 있던 때에는 줄곧 선생님이 맡게 되어, 化學製品科의 살림은 내가 加藤靖雄선배의 뒤를 이어 해 나갔고, 내가 떠난 뒤는 고 吉村昌光군이 물려받았습니다.

선생은 斗酒를 不辭, 雄志勃勃, 小我를 버리고 大我에 이를 것을 主張하였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大이고, 무엇이 小인지 잘 몰랐지만, 글썽 公平無私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혼자서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 참으로 小心한 좋은 분위기를 느끼게 되며, 꼭 4년 동안 한마디의 꾸지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꽤 버릇이 나쁜 편이어서, 선생님의 책장을 마구 뒤지고, 신간잡지를 먼저 펼쳐 보고, 얼마 안되는 실습비를 써 버리는 등, 무슨 짓을 하건 너그럽게 보아넘겨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가끔 化學工業을 공부하라고 참고서까지 내 주면서 권했습니다. 나도 그 유망성을 이해는 하나 흥미가 안나고,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에, 모처럼의 충고가 결실을 못거두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후임이 된 吉村군은 성적이 뛰어나서 거의 全甲이었는데, 다만 내 과목만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젊은 기운으로 油壓工業을 插入했기에, 吉村군의 불평은 당연한 것이어서, 그 이듬해부터는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내가 떠난지 얼마 안되어 甲木교수는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수인 田辺信治군이 무슨 연유이었는데 吉村군의 말을 듣지 않아서, 쌓인 분통이 폭발하여 田辺군의 따귀를 갈겼더니, 田辺군이 원종일 교실에서 울부짖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田辺군은 그때문에 병이 나서 사임하고, 한참 뒤에 福島義輝군이 대신 들어 왔습니다. 福島군은 京工의 최우등졸업생이었습니다. 전쟁이 심해지자 福

島군도 入隊하게 되어, 간소한 壯行會를 구내에서 마련했습니다. 席上 福島군은 두루말이 한 줄 길이의 謝辭를 낭독했는데, 内容인즉 여러 先生들의 時局 認識不足을 통렬하게 비난한 것이어서, 모두가 풀이 죽어서 훌쩍였습니다. 福島군은 신문사설을 읽고 감격하여, 이것을 베껴 사사로 써 보았을 뿐이었고, 판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젊은 제자들의 한 짓이니 선생님의 한숨도 그러려니와,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京工에는 많은 工專의 선배들이 밀에 깔려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원 명부의 첫째로 나오는 林千秋 선배부터 시작하여 岡本保, 守津哲夫, 竹内恒治의 여러분입니다. 물론 다른 工專출신으로는 神戸義, 中村秀次 등 제 선생들도 그러하지만, 예언자도 아닌데도 제 고장 출신자는 지독한 형편에 놓입니다. 이런 현상은 무슨 이 構内만의 특수성은 아니며, 日本 全國 아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고장에서 텃세를 부리는 곳도 있기는 하나, 要點은 各校가 서로 門戶를 개방하고 自由 경쟁에 맡기는 쪽이, 그 건장을 유지하는 데 좋음은 自明합니다. 加藤선배도 견디다 못해서 뛰어나갔는데, 그가 내버린 자리를 맡은 내가 화가 치미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의 秘話를 하나. P군은 요업과 생도로서 성적우수, 품행방정, 그런데 내 化學시험 답안이 걱정이 되어 못견딜 지경이었습니다. 답안철은 岡本과장의 非常箱 속에 있었습니다. 요업과 건물이야말로 傳習所부터의 고물, 하방은 썩어서 기울어졌고, 문이나 창은 잘 닫히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非常箱도 이만 못지 않은 골동품이어서 자물쇠는 있으나마나였습니다. 머리가 날카로운 P군은 岡本과장의 退出을 기다렸다가 어둠이 다가온 저녁에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전등은 없고 전지도 비싸니, 양초를 켜서 답안의 檢討를 시작하였습니다. 岡本先生은 진실一方의 성품으로 조심에다 조심을 거듭하는 분이어서, 저녁에 돌아보기 위하여 와 보니 촛불도둑(이즈음 이런 식의 도둑이 유행하였습니다.)이 들어 있어 놀라서, 눈을 부비고 자세

히 보니 가장 사랑하는 P군이 아닌가! 그 밤을 뜬 눈으로 새 채로 새벽이 되자 甲木교무주임에게 보고, 주임은 山村교장에게 上申, 그날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교장은 교무에는 생소하여서 無言, 岡本과장의 진상보고 후 일동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가장 입이 빠른 퇴역해군대좌인 加藤長太郎선생은 平素의 상냥한 성품을 自制하면서 『이것은 아무래도 퇴학처분밖에는 도리가 없소』하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역 육군중좌인 T선생이 특유의 연설을 한바탕 할 차례입니다. 그런 중 그의 혀끝이 빛나가서 『원래 조선인은 그 성격이 陋劣하지요. 쫓쫓.』 동석한 제선생의 찬성을 구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고급 단어에는 생소하여 멍청하고 있었는데, 東大출신의 崔允植선생이 이 단어를 못알아 들을 까닭이 없어, 노발대발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무엇, 조선인 선생 한사람쯤 성이 났건 웃건, 파리 한마리 정도의 주목 할만큼의 가치도 없지만, 만일에 이 일이 세상에 누설되면 조선인 신문쟁이가 가만 안있을까 염려됩니다. 얼마 전에 京城醫專의 久保박사가 『조선인의 腦質은 日本人 것만 못하다.』는 연구발표를 하였다가, 그 證明에 실패하여 결국 목이 날아가고 悶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장 이하 전책은 면키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겨우 생각이 돌아가니, 직원 여러분의 표정은 침통해져서 좀 푸르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休會, 崔선생을 겨우 달래서 진정시키고, 다음날 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재개 벽두에 妄言취소인 듯한 T선생의 요령없는 발언이 있는 다음에, 岡本선생이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여,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一蓮托生을 울음으로 선언하니, 회의는 다시금 정돈되어 출렁 거렸습니다. 결국은 P군은 구제되어 무기정학, 나중에는 우등졸업, 최근까지 요업계에 중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내가 문제의 답안을 조사해 보니 잘 썼고, 再試도 그래서, 이런 소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真相인즉 P군은 노이로제이어서 반년쯤 치료로 완쾌되었습니다. 당시 岡本선생이나 나나 틴 에이저가 이런 해괴한 병에 걸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참으로 당치 않은 殺生이 제어되어 잘됐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N씨는 내 체조선생입니다. 그때는 아직 교련은 없었고, 군인은 학교에서는 꿈쩍 못했었는데, 생도들에게는 체조란 名目뿐이어서 모여서 잡담이나 하면 잘한 편이었습니다. 월선 뒤에 目賀田중위가 이 상태에 크게 화가 나서, 그분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쳤었고, 이런 타성은 상급학교에는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 N씨와 나는 꽤 친해져서, 여행 같은 것도 같이 다닌 일이 있습니다. 旅行中 어느날 저녁 밥상을 벌여 놓고(일본 여관에서는 겸상은 보통 아니합니다.) 술 한잔으로 벌써 취기가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날 때는 이따금 옛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N씨는 義兵 동에 來韓하여 軍功을 세워, 退役 殘留하여 우리 地方사정에 매우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軍人적에 겪은 이야기는 좀처럼 털어놓지는 않지만 殺人은 별로 능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게, 농민들이 한패가 돼서 잡으러가면 산속으로 달아나니까 안돼. 촌에 들어가면 里長을 불러내서 處女徵發이야. 이걸 끌어올 적의 소동이야말로, 울고 짜고 아주 동물원이지. 할 수 없으니 졸병더러 몽둥이로 때려서 옷을 벗겨 들관 浴桶에다 집어 넣으라고 하지...』 글썽 무슨 닭튀김이나 하는 기분입니다. 이야기의 끝무렵 결눈으로 나를 살짝 흘려보면서 『자네에게는 대단히 안된 이야기긴 하네만은...』하고 사과하듯 내 비위를 굽어 봅니다. 손금쟁이 말로는 나는 감정선이 굽어서 흥분하기 쉬운 체질이라는데, 애늬은이가 된 탓인지 내 心琴의 줄이 몇개쯤 끊어져 있어서, 『이런 때는 화를 내지 않으면 안돼!』하고 理性이 명령을 내려도 별로 효력이 없는, 글썽 平和的으로 된 성질이니, 별일 없습니다. 이런 일은 前世記에 일어난 것이지만 1940년에 이르러서도 주저없이 이야기가 튀어 나왔던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義兵一撓는 한국現代史上 가장 중대한 案件으로서 全 사회에 심대한 변혁을 끼쳤습니다. 이 사건의 對日關係는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研究를 요하는 과제로 생각됩니다.

山形靜智선생은 京都高等工藝 출신의 미술가입니다. 대용한 베레모는 딱딱한 구내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釜山工業學校長으로 전직한 뒤로는 이 베레모도 벗었습니다. 언제나 상냥한 웃음먹은 얼굴로 구내에 行事가 있을 적마다 圖案과 잡무로 쓸모있는 분이었는데 전출로 구내가 졸지에 殺風景化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장난으로 雜文을 京城雜筆에 투고한 것이 그의 눈에 들어, 그가 편집하는「朝鮮의 建築」에 春聯에 관한 長篇을 썼는데, 이 일은 지금까지도 식은 땀이 납니다. 印刷된 뒤에 『이것 큰일났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春聯이라는 것은 中國이나 한국의 집기둥이나 문 근처에 붙여 놓는 글귀입니다. 戰災로 이 잡지의 백 넘버는 없어져서 우선 安心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學務局—아마 文部省에서 中等교원에게도 외국전학을 시키는 것이 좋으리라는 멋진 생각이 안출되어, 京工도 한개의 추천권이 생겼는데, 이 행운이 山形씨 손에 잡히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빠리여행을 즐겼습니다.

橫瀬善次선생도 역시 藏前출신인 줄 여기며, 機構學을 배웠습니다. 드물게 아주 얌전한 분이어서, 이 점 大學시절 下宿을 같이했던 東京高工 출신(藏前は 이리 改名했다가 얼마 안되어 東京工大가 되고, 그후 새로 公立으로 東京高工이 생겼습니다.) 藤本克己군과 똑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이 두분이 맹랑한 世上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 위태위태해 보였는데, 그런데도 큰 고장없이 渡世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떠벌이들만의 占有物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神戸彦선생은 건장하셔서 좋습니다. 옛날 談話會에서 양말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납니다. 그후 50년, 가끔 사람들의 양말을 눈여겨 보지만, 요즈음은 모두 똑같아서 재미가 없습니다. 외국에 가 보아도 마찬가지로 手製, 縫製 등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石堂篤一선생은 日語교사로 1일 1식이었습니다. 海州高等女學校長으로 전출한지 얼마 안되어 사직, 귀국했습니다. 흰 피부, 좀 뚱뚱한 보통키로 和服차림을 가끔했으니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甲木선생의 令息 甲木健児군(專應化)과는 종전 후 서울 김포공항에서 잠깐 만났을 뿐인데 선생님 遺家族의 행운을 빕니다.

(8) 中川虎太郎기사와 分析部

옛날분이 많은데도 명부에는 中川虎太郎老만이 홀로 나와 있는 것은 좀 아리송합니다. 아마 젊은 所員 중에 관계가 있는 분이 있나봅니다. 돌아갔다 해서 무작정 욕도 못하겠군요. 中川씨의 分析部는 1930년에 폐지되었으므로 그때 직함은 主任이 옳습니다. 과장이니 부장이니 번드레한 職名은 1934년 玉井군이 마구 붙여서 억지로 행사한 것인나깁니다. 中試가 1933년 혼이 빠진 무렵, 서무주임은 三浦仲助屬이었습니다. 뚱뚱하고 늘 웃는 얼굴의 기분좋은 분이어서, 나는 福德円滿의 相이라고 점찍어 두었는데, 사람의 운명은 相貌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서무주임은 소장의 위세를 빌려 多少의 덕도 보지만, 폐지소동이 터지면 여기저기서 샅대질이 들어오니 못견디지요. 그때문이었던지 태평하고 느긋하던 三浦씨, 드디어 병이 나서 丹毒症을 일으켜 죽었습니다. 이런 재수없는 자리를 노리는 괴짜도 없는 판에, 오래동안 圖書室에서 썩고 있던 玉井倚生군이 승진했습니다. 여기서 玉井속 잡배가 끈을 바짝 조여 매고 퇴세를 만회하려고, ○○주임 속 ○○명함을 뿌리면서 뛰어 보았자 누구 하나 상대를 안해 주니, 새 計略을 꾸며낼밖에. 그 덕에 내 명함도 주임 기수를 지워 버리고 部長이 되었습니다. 글썽 순사부장도 부하 5人쯤은 거느리는 법인데 내 手下 1人이니, 우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나, 그래도 이 명함은 어디를 가나 堂堂한 프리 패스여서, 玉井군의 智謀가 비범함을 인정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屬, 人手, 人足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칭호이어서 없애는 것이 당연하기는 합니다만...

中川노인은 통감부 광물분석실에서 일하던 분이니, 물론 藏前출신이며, 그 연조는 更田선생과 伯仲 어느쪽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학교에서 어느쪽이 선배인지 물어두지 않았읍니다만 그들의 대화로 미루어 큰차는 없는 줄 압니다. 歴史的으로는 典圖局은 分析室보다 먼저이고—아니 잠깐 기다리시오, 전환국에도 분석실쯤 있어야 하고—역시 更田선생이 古參입니다. 내가 中川노인을 뵈은지는 꽤 오랜 1923년경이며, 정식으로 인사한 것도 1930년입니다. 당당한 好

男子—아니 훌륭한 노인이었고 완벽에 가까운 대머리, 부드러운듯이 보이는데 말투에 어딘가 응어리가 있어, 질깃질깃한 아주 굳센 알맹이가 찬 분이었습니다. 그때 분석실에 들어가서 놀란 것은 청결과 정돈입니다. 出入口부터가 2중, 신을 벗고 슬리퍼를 신어야 합니다. 分析台는 반질반질, 먼지 하나가 보여도 호통이 나오고, 하얀 까운의 부하들이 파란 낮빛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은 무슨 神殿에나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옳구나! 이렇듯 왜야 데이터가 信用을 얻을 터이고, 저 유명한 귀리연구소의 매너리즘도, 아마 이를 확대한 것임을 直感했습니다. 그후에 實驗室의 깨끗했던 인상으로는 九大 의학부 大平得三교수의 연구실 등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런 데서 무슨 연구가 되었는데는 모릅니다. 中川노인의 방을 구경한 뒤에, 나는 이 흉내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實驗室的 청결도와 實驗値의 관계는 인정하나, 實驗量과의 함수는 미해결—혹시 명절차림으로 일이 안되지 않나 하고 전방진 생각도 해 봅니다만, 中川노인의 실험실이 기분좋은 것은 否認할 수 없습니다.

中川노인은 分析試驗成績表 2편과, 그밖에 調査보문 2편(그 중 하나는 유명한 淸州의 椒井藥水)을 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이따위 분석표는 休紙쪽으로 여겼는데, 막상 일을 당하고 보니, 더우기 아무 참고자료가 없을 때, 이 무미건조한 數値表가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 그 續編 1편을 꺼내고, 또 1편을 塚本正夫군을 시켜 편집, 脱稿해 둔 것이, 해방 직후 아깝게도 燒失되었습니다. 分析部 건물은 폐지후 아껴서 잠가 두고 공들여 保存하다가, 染織部試驗室이 불타서 전용되었으며, 지금은 工業試驗院 도서관의 일부로 변하였습니다. 中川노인이 퇴관했을 때 놀란 일은, 그가 在任 4반세기 동안에 金銀鑛試金에서 남겨진 金粒을 모아 놓은 것이 시약병에 가득찬 것을 인계했습니다. 所에서는 이것은 엄밀한 官有재산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그의 自由처분을 권하였으나, 끝내 官納을 고집했습니다. 長期保存이란 일종의 성벽이어서 德久노인도 놀라운 분입니다. 山形선생이 그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傳習所 이래 半世紀에 달하는 건축과 종이조각—

서류 시험답안 등이 드높이 쌓여, 허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남았더라면 꽤 재미있는 자료가 됐을 것인데, 결벽적인 山形선생은 그 전부를 난로에 던져 태워 버렸습니다.

中川기사는 노후를 서울서 즐겼습니다. 때로는 유유히 옛 친구 없는 구내를 혼자서 돌고, 곧잘 내방도 기웃거렸습니다. 내 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저것 창고처럼 어수선했어서, 좀 점연쩍기도 하였는데, 별로 싫은 눈치도 안 보이고 웃음에 젖은 얼굴로 환담하셨습니다. 때로는 鑛物분석을 부탁받기도 했는데, 절대로 스스로 손을 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데이터에 대해서도 비평이 없었습니다. 分析으로 고생한 분이어서 分析者의 기분을 잘 이해하시는 까닭이겠지요. 그와 함께 일하던 분에는 石倉昇씨가 가장 오래지 않았나 여깁니다. 메마른 몸매에 훌쩍 키가 큰 분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분 權錫圭선배(專應化)는 짝달막한 역시 몸매가 가는 분이었습니다. 이 두분이 中川노인의 단련을 받은 면허전승의 分析家인가 추측합니다.

分析部가 없어진 후 부터는 이 일은 化學工業部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이런 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 적에 애용되던 뉴드(Newth)의 교과서를 번역하여 西川교수를 도운 일도 있었으나, 별로 실기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도 큰 꿈만 꾸고 빈들거렸지만, 그래도 尹균보다는 좀 나은 편이어서, 尹균이 방직과식이었는지 훌쩍 맨손으로 分銅을 주무르는 꼴이 安藤一雄교수에게 들켜 야단이 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인즉 고등학교출신(그전 고교는 전문학교)은 한술 더 난폭했지만, 우리들 一同은 모두 기립한 채로 손가락에서 나오는 有機酸과 塩分, 이것의 金屬腐蝕作用에 관하여 박사님의 해박하고 기나긴 강의를 謹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실제상 별반 효과는 없이, 그저 조잡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던 나도 요즈음 학생실험을 보면,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그 대담, 난폭한 데 놀라, 감히 보려 갈 용기가 안납니다. 그런데 이 尹균이 中川노인의 일을 떠맡는 곤경에 처했으니, 얼굴빛이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때 고마운 것은 선배님이어

서 石井市重郎기사가 시작에서 끝까지 손을 잡듯이 指南을 해서 보고가능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절에 石井선배는 신경이 날카롭고, 그의 잔소리는 中川노인의 솜뭉치로 목을 조르는 식이 아니고, 침뭉칠과 비슷했다는 풍문이어서(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호걸인 尹군이 아무리 선배지만 참기 힘든 상태이었습니다. 이 危機는 中試 폐지소동으로 石井선배가 총독부로 전출하고, 尹군은 실업제로 들어가 겨우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분석 잘하는 친구는 山田義雄군뿐이었는데 요업부로 전출하고, 化學工業部の 유일한 전문출신인 安田군은 아주 손뼉 일도 없으니, 나도 전문은 有機인데 할 수 없이 依頼分析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편이어서 이리저리 試行錯誤를 거듭하여 겨우 이 일을 케도에 올려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鑛石, 시멘트 등 수출에서 외국의 수치와 대결하게 되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렇저렇 内外의 신용을 얻었습니다. 그후에 의뢰자가 急増해서 佐伯節雄, 塚本正夫, 新井英一 제군이 들어와서 우선 손을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따금 天秤室을 기웃거리는 때에 가끔 安藤교수의 잔소리를 기억하여 이야기했지요—아마 大河内嘉子군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의뢰분석의 일은 사고도 가끔 납니다. 드문 일이나 실수도 있고 해서 의뢰인은 불평이 늘 따르지요. 최소한 더디다는 욕은 예사입니다. 實例의 하나. 그즈음 우리 固有工業은 日本企業의 압력에 눌러 힘들었습니다. 香粧品도 그 현저한 것의 하나로, 中國事變을 계기로 大阪의 化粧品회사가 진출을 계획해서, 그 선발대로 新川씨가 드나들면서 제품검사를 의뢰하고, 그뒤 정부는 統制, 轉業 등으로 임하였습니다. 종전후 新川씨가 와서 『사실인즉 저는 朴英來라 합니다.』라고 경상도사투리로 인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朴씨는 再起하고자 이리저리 애썼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타계하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쪽 최대의 업자는 朴家粉이라 하여 원래 鉛白을 만들었는데, 그 2世 朴斗秉씨가 高商출신의 秀才로서, 벌써 티탄白을 도입하여 규격품을 만들어 檢定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보고서에는 鉛分검출로 나왔으니 분기가

났습니다. 결국 재의뢰로 無鉛이 확정되었는바, 명목상 도장을 찍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서툴러도 납의 定性을 잘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사건은 아마 試料管理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에 朴斗秉씨는 재벌의 한분으로 발전하고, 大韓商工會議所 會長을 지내고 돌아갔는데, 대단히 화가 나서 오랫동안 오해가 풀리지 않은 듯했습니다.

또 다른 失手の 하나. 製紙室의 妹尾光太郎노인은 棉皮紙 종이를 떠 가지고 크게 뿔내다가, 이어서 棉皮를 부셔서 만든 棉皮紙를 발명했습니다. 이 일이 진행중, 한편 鑛山개발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어서 어떤 시골분이 地皮라는 것을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妹尾노인은 무엇이건 종이로 떠보는 사람이어서, 곧장 이것으로 종이를 떠서 말려 보니 돌과 같이 딱딱하고 부러지기에, 여기다가 펄프를 半쯤 섞어서 종이를 떠서 石綿紙 대용으로 防熱재료에 써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原料공급이 어렵고, 防火에도 결함이 있어서 産業的으로는 결실을 못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石綿입니다. 石綿자원은 캐나다와 아프리카에 많고, 韓國것은 貧礦이어서, 그래도 전쟁중 조금이나마 採掘했는데, 진흙 속에서 石綿이 나온다니 口味가 당기는 이야기입니다. 妹尾노인은 俳人이어서 이름 짓기를 좋아하여 土綿이라고 作名, 使用하였습니다. 나도 대강 鑛物책 등을 뒤져서 土狀石綿에 比定하고, 이 名稱의 鑑定書가 몇 통 發付되었습니다. 妹尾노인은 풍성풍성한 수염에, 술이 취하면 아무나 부둥켜 안고 할아서, 연회에서는 모두 될 수 있는대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半년쯤 妹尾노인의 別채에 세든 일이 있었는데, 재류 일본인의 생활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土綿은 鑛物名 岩皮 또는 石皮 Brucite 성분은 含水마그네시아입니다. 그후 30년이 지나서 東大生産研의 高橋浩교수가 來訪해서 岩皮의 생산상황을 물어, 비로소 이 誤判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광물은 자동적 恒濕기능이 있어 매우 흥미있는 것이나, 아물든량이 적어 실용이 안되나, 앞으로 合成으로 장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專攻 밖의 것에 아는 체 하는 흥내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실제문제에 부딪치면 시간 제약을 받게 되니 拙速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平生에 한차례 대담한 판단이 잘 들어맞은 일이 있습니다. 이는 尿素의 量産입니다. 1950년경 内外의 대가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尿素肥料에 先鞭을 붙인 일은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판이었더라면 나는平生을 회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尿素 그 자체의 量産기술의 발달보다도, 그 포장재로 플라스틱袋의 발전의 선물이었습니다.

危機는 幸運도 예기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부분은 奇襲의이어서, 만심은 절대로 안되지만, 運數가 없지는 않아서, 君子는 물론 危險한 데를 가까이 안한다 하나, 일을 하는 이상 그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 人生은 진땀이 납니다.

(9) 片山崑先生 共通科의 諸教授

내가 京工專에 입학해서 맨처음 기뻐했던 것은 實驗台의 4半分을 專用으로 割當받은 것입니다. 이 시절에는 옷장 같은 것은 교수도 못가졌었습니다. 내 옆의 4半分은 龍中출신의 內藤 군이었는데 그해 여름방학중 티푸스로 사망했습니다. 1학년에서는 공통과목이 주로서 영어는 伊藤靖 선생입니다. 白髮에 鶴 같은 목이 빼이고 키가 큰 수척한 仙人의 모습이었습니다. 伊藤 선생은 高商에도 出講, 가끔 도루마(淡黃色 中國産 모시)로 지은 홀두루마기를 걸치고 큰길을 어정어정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마 胃腸이 약한 까닭인지 美食, 異食에 관심이 커서, 가끔 목노집에 들어가서 술안주를 즐겼습니다. 海外生活을 좋아해서, 北支사변중 老軀를 무릅쓰고 天津서 教壇에 섰으나, 얼마 안되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異味와 異國情調를 마음껏 즐기면서 往生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數學은 平賀良藏 교수, 京都大출신이었습니다. 교단은 첫 경험이었는지(사실인즉 高師 境遇) 微分の 論理的 證明을 시도하였으므로 京工專有史 이래의 高率의 낙제생을 냈습니다. 나는 엉뚱하게 형식적인 간이수족으로 해치워서 선생

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不平에 대한 노여움은 대단했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노력 없이 좋은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화낼 만하나, 그게 학생입니다. 나의 大入 준비에는 선생도 傍系출신이어서 유익한 助言을 받았습니다. 얼마 안되어 城大豫科로 전출, 北支사변중 北京師大교수가 되셨습니다. 내가 몇차례 北京師大를 찾아갔으나 늘 안계셔서 못 만났습니다. 무사히 귀국하신 모양인데 우선 다행입니다.

鑛物은 福島儀太次 교수, 東大出身, 작은 키, 툭툭하고 튼튼해 보이는 분이었는데도, 肺炎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폐렴이 아마 溫水 난방 탓인데, 住宅에 이 장치는 그때는 희귀했으나 집구조, 연료 등 지금과는 달리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有機化學은 片山崑 교수로서 中試의 重鎮이었습니다. 검은 피부, 날선한 야윈 몸매, 변론은 상쾌하고 날카로워 諷刺에 능숙, 그리고 좀 허스키한 음성도 좋았습니다. 어느 외부 商人의 이야기로는, 釜山서 서울까지 列車의 옆 좌석에 앉아서, 선생의 풍채에 열이 빠져 말을 건네려 했지만, 그 위엄에 눌려서 내내 끝까지 그 기회가 없었다는데, 내게는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이 短時間이었더라면 — 가령 京仁 간쯤 — 선생이 두꺼운 금테 안경으로 端坐하셨을 때 옆에서 보면 독일인 비슷하게 여길 수도 있어 간혹 얼떨떨하겠는데, 거기다가 선생은 대단히 말많은 분이니, 또 다른 神話의 하나는 선생은 눈과 코만 가지고 일체의 약품을 감별한다는 것입니다. 글썽 이는 약품의 범위에도 따르겠으나, 일체는 아마 誇張이겠지요. 더우기 감정에 코를 사용함은 위험한 일이어서 나는 엄중히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 몇번 안되는 청강 중에서 선생은 브롬을 잘못 다루어 그 코를 상하는 등, 황산으로 팔을 다치는 등, 이런 門外漢식의 이야기는 엉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훌륭한 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은 東北藥專출신, 明治末期의 藥學界의 거인, 長井長義박사의 門下에 들어가 — 맥 玄關에는 이 老교수가 선생에게 써

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修業에 힘쓰다가 中試에 초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의 生涯 중에, 그리고 中試로서의 最大규모의 研究는 褐炭의 品質改良試驗입니다. 여러편의 두꺼운 보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점은 褐炭의 風化防止法으로 熱처리에 의한 脫水安定化—이 제품을 가다코울이라고 命名—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 시절에 化學工業部는, 曝露시험을 위한 과일광우리에 채운 갈탄으로 원마당이 뒤덮였었습니다. 강의시작 두달만에 선생은 南滿洲鐵道(株) 撫順研究所의 초빙을 받아서, 우선 예비조사차 독일을 들렀다가, 滿洲로 가셨습니다. 撫順서는 頁岩油의 脫蠟을 研究하셨습니다. 이런 시험연구는 그 자원이 빈약해서 실용화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금후에 에너지문제의 변화에 따라 그 문헌상 가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선생은 독일서의 歸途에 치즈 큰덩이 2개를 구내식당에 제공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는 돌보다 굳은 明治치즈 밖에 몰랐는데, 이 기회에 그 본맛을 알고 대단한 치즈黨이 되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후에 선생은 滿洲에서 돌아와서, 素砂에 전원주택을 마련하여 靜養에 힘썼으나, 마침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맥에는 自流井이 있어 그 동네서 명물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종전후 지금까지도 行方不明이어서, 평소에 慰願가 두터웠던 革川新太郎군(專 同科同期)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매우 독한 풍자가여서, 교실에서도 거리낌없이 여러 교수들을 짹아내셨습니다. 다만 西川교수에는 例外로, 西川교수의 言行, 가령 시험문제 등도 보여드리면 늘 감탄하셨습니다. 매우 말하자면 變則的인, 또는 多面性을 가진 활동가로서, 그리고 대단히 사람을 끄는 회한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10) 小坂乙吉先生

내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와 선생님은 호랑이 같이 무서운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터라, 高工에 들어가서도 그럴 것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1·2학년 중에 가장 친밀했던 분은 小坂乙吉선생이었습니다. 그는 分析실험, 무기화학, 무기공업화학을 담당하고, 강의중 모르는 대목—그것은 工學上的 事項인데—은 담당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外遊中인 西川교수의 代役으로, 고향은 京都인가 짐작되는, 東北大 化學科출신이었습니다. 학교를 나오자마자 교단에서신 까닭이었는데, 생도들을 친구처럼 대하셔서, 아마 학교 당국에서는 좀 난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조선인 학생과의 交遊가 위주로 우리들은 처음으로 스끼야끼니 위스키니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스끼야끼를 본따서 級友들을 초대했습니다. 鑛山科의 中川善太郎군 등이 즐겁게 들어 주기는 했지만, 아뭏든 남비니 간장이니 모두가 진짜가 아니니, 비슷하지도 못한 괴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즈음 나는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을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理科출신은 대개는 순수해서 선생다운 品格이 있으나, 工科系는 거의 애늬은이꼴으로 느껴졌습니다. 오자마자 2중성격을 띠려 하고, 젊은 학생, 더우기 조선학생과 친해지면 그게 무슨 出世에 지장이나 되는듯이 피하려고 애쓰는 눈치였습니다. 人間은 출세를 위한 기계는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도 애태운 출세성공의 殘骸는 무슨 소용이 있었으며, 얼마나 그 本人과 그 주위를 행복하게 하였을까요? 물론 당시에 조선인 학생문제는 선생님들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 것이었으나, 小坂교수의 생애의 起伏은 혹시는 이 까닭으로 그 순조로움을 저해했는지도 모르나 후인에게 인간다운 情愛를 심는 일은, 훨훨 치솟기만 한 사람들로는 생각도 못할 능력이었고, 그리고 행복하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즈음 선생은 오토(Otto)의 독일어 문법 등을 주셨는데, 나는 이것으로 자습을 시작하여 나중에 내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새해에는 가끔 墨畫 카드를 주셨는데, 아주 절묘한 影畫를 그리셨습니다. 말형님이신 日出小學校長 小坂壽太郎선생에게 기거하시어 꽤 그 규제에 어려워하신 눈치였습니다. 얼마후 高女 교유인 분과 결혼, 西川선생이 독일서 귀임하자, 전출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와 教授가 되셨으나, 다시 전출, 귀국을 거듭한 끝에 고향에 돌아가셨습니다.

몇해전 그 부인이 한국인 제자들의 요청으로 來韓하셨을 적에, 그의 女弟子를 통하여 『往年의 수재 지금은 어떠시오?』하는 안부를 전해왔으나, 대답을 드릴 틈도 안주셔서, 그저 그

대로 받아만 두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명복과 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빌뿐입니다. 선생님은 중키에 보통 몸집, 귀족적 面貌를 갖춘 분으로 나는 느낍니다. 무엇이 귀족적이냐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近衛文麿공작 비스름하다 할까, 흰 피부, 얼굴 中央部가 凸起, 짙달막한 콧수염, 흉하지 않은 조금 대머리에 머리를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한사람의 완전한 스케치를 떠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진짜 公卿귀인 중에는 岩倉具視공작 같은 현상국은 얼굴도 있고, 또 흔히 단작스러운 귀꼴들이 옛날이야기에 나옵니다만, 선생은 이들과는 正反對되는 인품이며, 귀족혈통도 아닙니다. 아마 놀기 좋아하는 것이 그의 화근이었겠지요.

(II) 西川九藏先生

내가 京工專 생도로서 교수들에 대한 不滿을 호소하면, 많은 분들은 관에 박은듯이 西川九藏교수가 귀임할 때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렸습니다. 그 西川선생은 귀국할 예정期일이 벌써 전에 지났어도 마냥 안오시니 모두가 지쳐 버렸는데, 내 2학년 끝무렵이 되어서 겨우 나타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인즉 독일이 좋아서 귀국하기 싫었지만 의무상 할 수 없이 떠났으니 지지부진은 당연합니다. 이런 사정은 선생의 遺稿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만 선생님이 독일에서 저 天文學의인 인플레이를 만나서, 졸지에 큰 부자가 된 기분이 생겨 교실원에게 영양보급을 하는 등, 小오스트발트(Ostwald, 물리화학의 창설자 빌헬름(Wilhelm)의 아들 볼프강(Wolfgang), 콜로이드科學의 개척자)교수를 화나게 한 일, 또는 谷口長一郎교수가 독일에 무전여행을 시도하여, 큰 고생을 한 사건, 그리고 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直孫 아가씨를 會話독선생으로 모신 사연 등은 이 책에 기입되었는지 아닌지 아직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좀 큼직한 중키, 뚱뚱하고 눈에 띄는 콧대, 關西사투리였습니다. 귀임후 얼마간은 흰 얼굴을 덮은 독일식 수염이었는데 얼마후 짧은 콧수염만 남겼습니다. 강의에서는 당장 독일술어 전용으로 모두들을 찢찢매게 했으나, 다행히 나는 조금 입매를 했기에,

간간이 내가 통역을 하여 잘 진행되었습니다. 물리화학을 담당하셨으나 專門인 콜로이드, 그리고 立體化學은 城대에 출강하셨습니다.

선생님은 東北大 化學科를 졸업하시고 우선 中試에 초빙되어 電氣化學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理科系列 순수 화학전공은 小坂선생과 같으나, 그전에 大阪高工 應用化學科를 나와 工場에서 學資를 벌어 가지고, 그때부터 私淑하던 眞島利行박사의 門下에 들고자 仙台로 갔으니, 속마음으로는 有機化學을 할 작정인 것입니다. 이 시절에 電氣化學工業은 시대의 脚光을 받아, 中試도 이 部門을 설치하고, 今津明, 浦野三朗 등 후일의 猛將들을 초빙하여 선생과 더불어 5편의 報文을 냈습니다. 얼마 안되어 이 부문이 폐지되고, 今津씨는 귀국하여 製藥會社를 창설하여 今津과리약은 한때 東亞를 휩쓸었습니다. 이 회사가 매년 개최하는 파리慰靈祭도 명물이었습니다. 한편 浦野 박사는 高度漂白粉의 研究開發로 保土谷曹達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名聲을 떨쳤습니다. 남은 西川선생은 化學工業部로 옮기셔서 여러가지 일을 하시면서 4편의 보문을 발표한 뒤에 京工專 교수로 전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기초科學에 대한 傾斜는, 이에 專念할 기회의 欠如로 향수화한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기초과학 존중은 선생의 世俗的 조건을 副次化시키는 점에서 그의 性格을 理解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선생이 귀임하신지 1년쯤 지나서, 나는 여러 선생님들의 권고를 받아, 九大入試에 합격하고, 돌아오니 집안이 파산해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은 보통이었지요. 이는 세계공황과 조선경제의 붕괴성의 崩壞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日本의 자본주의가 그 허덕임을 조선에서 좀 건져 보려는 안간힘도 있어 土着산업의 몰락을 촉진시켰던 까닭입니다. 어쨌든 나는 岐路에 서게 되어 西川선생과 相議했습니다. 그즈음 선생은 長沙洞의 妙心寺를 다니셨고, 그 信徒인 田村미망인이 장학회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참여하였으므로, 교섭을 하여 진학이 가능해졌습니다. 九大를 나와서는 같은 구내에서 거의 매일 뵈웁게 되고, 公私萬端 상의에 응하여 주셨습니다. 뒤에 선생은 勳任교수가 되셨으나 群小들의 蠢動이 끊임없었고 드

디어 종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에 防空 연습으로 밤샘도 했는데, 나는 선생께 敗戰의 必至를 말씀했으나, 결국 별도 도움을 못 드리고, 京都로 귀환하셨습니다. 선생의 만년은 병고로 어렵게 지내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Princeton 재류중에는 자주 편지왕래가 있었으나 6·25 동란부터는 그나마도 끊겼습니다. 이내 돌아가셨지만 令息 四郎, 七郎의 兩군, 令婿 内田久也 군(專應化)도 잘 지내며, 지난 해에 遺稿를 정리, 간행한 일은 다행하다 하셨습니다. 이 遺稿에는 선생의 家系를 비롯하여 그 생애와 思考가 담겨 있어, 다시금 그 인자하고 忠厚한 인품이 느껴져 감회를 자아냅니다. 西川四郎, 西川七郎 兩군은 자주 찾아왔었는데, 요즈음은 활동방향을 바꾸었는지 뜸합니다.

西川교수의 工科教育論은 ① 기초과학을 단단히 다져서 그 應用能力을 갖도록 할 것, ② 기술과목은 체계화, 간소화할 것의 두 점으로 요약됩니다. 이런 방안은 요즈음까지는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으나, 나는 선생님 생전에 가끔 토론을 벌였었지만, 그 일부분은 受容하더라도 補完을 요한다고 여깁니다. 나는 工科의 社會的 使命과, 일의 방법체계를 이해시켜, 그 학문으로의 獨自性을 갖도록 하는 것을 重視하는 까닭에, 이른바 自然科學的 기초도 기초의 일부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점이 理科系와 工科系와의 發想의 차이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二瓶久교수도 東北大출신이나, 化學工學科입니다. 보통키, 보통 몸매, 東北사투리, 머리숱은 성기고, 正直, 근면한 분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자기방과 남하를 조제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有機化學, 有機工業化學을 담당하셨습니다. 晩年에 禁酒를 단행했으나 대단한 愛煙家이었습니다. 外遊중 나는 纖維素공업 등을 대강했고, 독일서 귀국하시자 膽石症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종전후 무사히 귀국, 정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新명부에는 안보여 섭섭합니다.

(12) 展覽會, 釀造部, 衛生部

中試, 京工, 京工專의 세 기관은 전쟁전까지는

매년 10월 하순에 工業展覽會를 열어서, 시민에게 구내를 개방함과 아울러 試製品即賣會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람회라 해서 별로 큰작한 준비는 없고 카니발 정도이나, 여흥에는 물리교실에서 骸骨춤이 좀 사람을 섬뜩하게 하였고, 그보다는 試製品을 비교적 싸게 파니까 인기를 모아, 특히 물품이 많은 午前에는 대단한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시제품은 酒類, 織物, 香粧品, 陶磁器, 鐵物스토프, 紙類, 家具, 그리고 2층木造住宅의 骨組 등 꽤 다양했습니다. 술은 麻浦의 釀造部에서 만든 것인데 淸酒, 포도주, 브란디, 梅實酒 등, 그 중에도 梅仁을 소주로 침출하여 味淋으로 달콤하게 한 매실주가 값도 싸고 대중적이어서 인기품이었습니다. 직물류는 염직부의 시제품으로서 주로 한복지, 香粧品은 京工 化學製品科 製品이라지만 吉田四郎씨가 재주를 부린 것입니다. 이 분은 운순한 재주꾼이어서 전환국 이래 인쇄, 비누, 향수, 화장크림 등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자기는 中試 窯業部 시제품인데 靑瓷 등 꽃병, 食器, 양자기 등, 鐵物은 京工 기계과의 實習品으로 小型工具, 煖爐, 建具類, 紙類는 中試 製紙室에서 나오는 化粧紙, 두루마리, 洋紙, 木工品은 各種 가구, 그중에서도 옷장과 책상, 京工 건축과 실습제품입니다. 그밖에 中試 요업부가 마에서 즉석으로 구워내는 樂燒도 名物이었습니다.

釀造部는 財務局(稅務)의 酒類試驗室로 分離復歸되어, 現在는 國稅廳技術研究所로 확장되었습니다. 中試 소속 중에는 16편의 보문을 냈습니다. 試驗成績보고가 주로서 産業的이나 학술적으로나 별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우선 규모가 過小하고 기초적 시설, 특히 細菌學의 연구가 안되는 상태에서는 그럴듯한 연구성과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酒稅세도 때문입니다. 酒稅徵收행정인 우선하기 때문에 朝鮮酒類의 근대화는 담보를 계속하셨습니다. 이런 사정은 現在까지도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밖에 農産加工試驗도 대개 여러가지 야채 깎통, 특히 토마토 펄프, 잼 등 試製에 그쳤습니니다. 김치 연구도 50년대 이후니, 이런 시험연구가 現地固有의 과제에 우선 힘써야 할 것이었습니다.

衛生部도 分離독립하여 衛生試驗所가 되고, 종전후는 保健部 化學研究所로 됐다가, 현재는 國立保健院의 1부로 성장했습니다. 中試 소속기간중 15권의 보문을 냈습니다. 그중에서도 各地方の 藥用植物調查報告는 지금도 植物生態學 연구에 참고가 되는 문헌입니다. 위생부와 전기화학부는 化學工業部(現 有機化學部) 본관 동쪽 코크리트건물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임인 馬場治郎기사는 그때 벌써 상당한 나이였고, 宿谷舜英씨는 가끔 전차에서 마주쳤는데 당당한 몸집에다 흰 까운으로 시중을 확보하여 곧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分析部の 試金部門은 燃料選鑛研究所로 이관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일은 화학공업부가 인수하였습니다. 燃選에서 이 일은 나중에 서울대 공대 교수이었던 고 崔浩英박사가 담당하였었고, 지금은 대규모의 資源開發研究所가 永登浦 남쪽에 두군데 생겼고, 또 에너지관리연구부문은 大田 大德연구단지에 별도로 설치되었습니다.

(13) 緊縮時代

1930년 전후의 世界的 불경기가 아주 장기화, 심각화함에 따라서, 行政官들의 부속기관을 들볶는 버릇은 점점 지독하게 됩니다. 성미가 급하고, 기분이 높은 三山소장의 心中이 된다는 모습은 짐작할 만합니다. 작은 시험소 하나쯤 내댈져 두어서,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날그날을 의뢰분석시험에 수용하면서, 그 남은 손끝으로 이것저것 주물러 보는 일이 限界로, 겨우 겨우 버티어 나가는데, 行政官으로서 보면 宣傳재료는 지원치 않고, 그까짓 것 치워 버리는 것도 업적의 하나가 됩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東京에 부탁하면 경제가 된다고 行政官은 책상 위에서 작정해 버립니다. 문제는 무엇이 참으로 민중이나 사회에 유익한가, 어떻게 불경기를 克服하고 失業을 줄이느냐의 根本 방침이 없이, 그저 行政上 편의, 겉치레에만 열중해서, 요긴한 군본을 말려죽이는 것이 안된 일입니다. 中試는 창설 이래 行政官에게 끝까지 반롱되었습니다. 다른 시험장이나 연구소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工業쪽은 大企業은

東京과 직결되어 있고, 中小企業은 日本 본토에서 보면 현지발전은 달갑지 않으니, 農業이나 衛生 또는 鑛山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분위기는 누구에나 쉽게 눈치채일 수 있어, 유능한 人材가 와 보고는 將來性이 없으니 도망가 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三山소장 末期에 中試는 벌써 속빈 강정이 되었습니다. 化學工業部가 志村恒義, 石井市重郎 두 기사, 尹柱福, 安田邦賢 두 기사, 妹尾光太郎 촉탁, 染織部는 村松宗次기사, 近藤達雄, 瀧川昇 두 기사, 窯業部가 高原知義기사, 大橋武夫, 吉田寛一郎 두 기사뿐이었습니다. (이 지경에서도 韓人은 尹군 한사람뿐) 그런 중에 三山소장이 特許局으로 가고, 山村銳吉 소장이 부임하여, 드디어 1933년 大緊縮을 맞아서, 앞서 말한대로 기사 이상이 겨우 9인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 시절에 활동한 분들의 프롤을 若干 회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志村恒義 化學工業部 주임인데, 이분은 좀 마른 보통 몸매, 말이 적고 변밀하고 小心한 분이었습니다. 山田義雄군(나와 專 동기)이 단 하나의 조수로서, 내가 문헌조사로 가끔 폐를 끼쳤는데, 조금 말을 더듬으면서 친절하게 편의를 보아 주었습니다. 東大출신, 여러 方面에 걸친 여러권의 보문을 발표했고, 재직중에 筋肉炎으로 서거하였습니다.

石井市重郎기사는 내 大學선배일 뿐만 아니라 恩師 寺野寛二박사의 조카사위여서, 内外두 분과 자별하게 지냈습니다. 두분 다 종전후 고향(石川縣)에서 돌아가셨다니 섭섭합니다. 그가 졸업때에 不景氣는 참혹해서, 간신히 中試에 왔으나 오랫동안 촉탁생활로 보기 딱할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중소기업에서 현저한 것이 고무공업이었는데, 여기 착목하여 試驗시설을 대강 정비한 무렵에 再진축 바람에, 할 수 없이 2권의 보문을 남기고 총독부 기사로 전임, 얼마 후에 退官하고, 시멘트協會의 理事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理事 시절이 그의 최고 安定했던 세월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東北사람이나 별로 사투리는 없었으며, 京工專에서 多年간 고무공업을 강의했습니다.

尹柱福군은 시멘트分析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최대의 의외품목이었습니다. 中試페지 소동 중의 환약은 기록해 둘만 합니다. 퇴관 후 京城紡織(株)工場長, 그리고 北支에서 환동을 벌여 成功을 거두었으나 종전으로 거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와 더불어 田村育英會 費生이었는데, 그 報恩으로 花園經理學校 설립을 후원했습니다. 花園은 妙心寺에 관계 깊은 名稱이며, 그 위치는 忠信洞, 지금은 女高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精力家여서 人名과 그 履歷에 대한 기억능력은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업가로 大成할 수 있는 傑物이었는데 10년 전에 하치않게 서거하였습니다. 그의 發軔 때 지켜본 친구는 겹동창끼리인 金鍾射군(학술원 元老회원)과 나뿐이었습니다. 化學工業部에서 시멘트分析담당 金椿林군은 그의 처남으로 나를 도왔고, 서무의 尹柱奭군은 그의 친아우입니다.

山田義雄군은 양약국집 매퍼들인 탓인지 약만지기를 좋아하여, 학생 적에 도시락을 들고 나서 실험실에서 塩酸을 물에 타서 마셔서 모두들 질겁을 했습니다. 본인의 해설인즉 胃液은 염산이니깐, 이것으로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인데, 혹서 그때에 内科医는 이런 따위로 약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순 염산이어서 무사했지, 비상이 든 것이었더라면 벌써 갔을 것입니다. 아주 陽증이어서, 円滿하여 어디를 가나 높은 웃음소리가 요란했습니다. 窯業原料 調査에서 分析부문을 담당하여 10편의 보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單獨보문으로 낸 朝鮮工業用水試驗報告의 1편은 그 利用者가 많아서 中試報告중단 하나의 再版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된 기상이 그런 까닭인지 장수, 다복한 생애였습니다.

室田武隣기사는 元 염직과 주임으로 藏前출신인가 합니다만, 키가 작고 바라진 몸매이었습니다. 꽤 광활한 성격이어서 일을 싹싹 해치우는, 좀 近接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모두들 조심해서 대하는 형편이었습니다. 絹織이 전문이며 활동가이어서, 프랑스나 중국으로 돌아다녀 그 조사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총독부 기사로 전출하여 그 뒤를 村松宗次교수가 맡게 되었습니다. 염직부에서 하는 일은 在來機業의 개

량지도가 그 主目的입니다. 그래서 지방기업의 지도—이 일에는 다수의 京工, 京工專 졸업생이 종사했고, 또 機業技術養成—禹鳳金 女史도 이 출신—등 사업도 시행했습니다.

中試의 발견으로 産業化한 것으로는 신나무엑스가 有名했습니다. 신나무는 鴨綠江岸에 흔한 단풍의 한 종류입니다. 신나무 잎을 물로 浸出하고 졸여서 만든 것인데, 중국인이 비단 媒染劑로 썼습니다. 이는 上田嘉助, 張翼鉉 두분의 발명인데, 아마 몇종의 中試가 독창한 것 중에서 가장 실용성이 있었던 것인 줄 여깁니다. 上田기사는 5편쯤의 보문을 발표한 뒤에 金澤高工 교수로 전임했습니다. 近藤達雄군(專紡)은 키가 큰 튼튼한 사람이었으나 티푸스로 사망하였습니다. 瀧川昇씨는 보통 키와 몸매로 얼굴이 좀 길고 아주 인사성이 바른 분이었습니다.

窯業部の 高原知義기사는 내 物理化學과 電氣化學에 첫발을 댈게 해 주신 분입니다. 東大졸에 秀才型, 얼마 안되어 退官, 귀국하여 지금은 日本窯業界의 重鎮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종전후 2, 3차 來韓하여 學術강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요업부의 주요업적은 요업공장지도, 원료조사, 고려청자의 復原 등입니다. 大橋武夫씨의 琺瑯鐵器試驗은, 分析表를 별개로 하면 中試 最長의 보문입니다. 그는 이 사업의 移植과 육성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餘談입니다만 내가 高工에 입학했을 때에는 요업전공 云云의 조목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分析室 옆집이 요업부이어서 들여다 보니, 진흙이니 사기그릇이 됴글어져 있어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석실 뒷문과 요업부 앞문이 마주 서서 한 直線上에 있어서, 요업부 사람들이 저절로 최단거리를 취하여 늘 무단통과합니다. 이걸 방해가 됩니다. 무슨 실험정밀도에 영향이 아니라 드라프트가 형편 없어서 出入할 때마다 가스버너가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更田선생께 진정하여 通過를 못하도록 표지를 붙여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마 秋月透씨였든지, 늘창 커다란 사기乳鉢을 안고 싹싹 저으면서 分析室을 슬슬 지나가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들은 요업을

까닭없이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급한 뒤에는 이번에는 고 韓性熙君(專應化)이 小山교수助手가 되어 원종일 썩썩거리면서 돌아다니니, 우리는 韓君을 혼내 줄 궁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선배는 아주 이런 데는 무신경이어서, 久保田선배는 요염신비론자요 감격파니 말도 안되고, 이 병이 S선배에게 전염되어 졸업논문 때문에 벽돌조각을 넣고 썩썩거리기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더니 鐵触媒를 만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후일 내가 미국서 분말공학을 들여다 본 것도 이런 일이 머리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썽 대체 乳鉢의 永久운동으로 최고급도자기가 된다면 工學 같은 것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科學技術에는 이런 迷信이 지금도 적지 않게 남아 있고, 그래도 습관대로 하고 있으니 이상한 일입니다.

(14) 山村銳吉 所・校長

山村銳吉소장이 東京工業試驗所 第一部長(分析試驗)에서 영전 부임한 1930년은 不況의 맨 밑바닥이었습니다. 工業化學會長을 지낸 장로이며, 長身中肉의 흰질한 몸매, 머리는 매우 빠졌으나 훌륭한 풍채이었습니다. 溫厚篤實 長者의 기품, 허세없는 친하기 쉬운 분이었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撓止波動에 直面했습니다. 三山, 山村 두 분이 모두 대수로운 고생을 겪은 일이 없는 이른바 溫室 속에서 자라난 분이라, 이런 때에는 구원병을 청할 데도 막연하여, 그저 어리둥절 찢찢맨 뿐이었습니다.

그때의 朝鮮商工會議所는 地方商議의 上部조직으로 부패현상도 있었으나, 점차로 淨化되어, 朝鮮皮革(株)社長인 賀田正治씨가 회두로되어 安定을 되찾았습니다. 이 단체는 별로 自主力은 없으나 미약하나마 壓力團體 끝입니다. 賀田씨는 東大農科출신이어서 기술기관의 苦境은 좀 이해하고 있어, 山村소장의 간청으로 겸손한 陳情書 짤은 것을 것입니다. 이보다도 귀찮은 것은 조선사람의 신문 東亞日報입니다. 이 신문은 東京의 內閣서도 보고 있어 총독부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尹君이 노려서 社說에서 빈약한 시험소 하나까지 부셔서 東京에 진상하는 것은 고약하다고 짹아 내리

니 어쩔니까? 그래서 中試 간판만은 남은 것입니다. 조선상의의 산하단체에는 朝鮮工業協會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회는 간판은 크나 직원은 老사무원 한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인즉 여러가지 展覽會니 팜플렛이니를 내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은 中試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展覽會에 참견도 하고, 여러가지 代筆役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절에 낸 「朝鮮의 資源과 工業」(丸善)이나 「世界地理大系」 朝鮮篇(培風館) 등은 그 實例입니다.

이러하게 세월이 흐르는 중에, 滿洲事變이니 北支사변이니 해서 局面이 급변하여, 中試의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나 起死回生으로 向하였습니다. 工業用水 調査, 分析試驗 擴張, 窯業原料 調査, 工藝部 設置, 電氣化學部 設置, 女子技術員 養成 등, 대수롭지는 못하나 中間試驗工場 施設 같은 헛수고도 있었고, 우선 世態가 요구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업의 착상은 대강 내가 하고 玉井君이 예산을 끌어냈습니다. 山村소장의 心勞는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신히 小康을 즐겼을 줄 여깁니다.

이 시절의 官員의 풍습을 例示하지요. 野口遵 朝鮮窒素社長은, 조선서 그토록 巨大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총독부쯤은 眼中에 없어, 일이 있어 來韓해도 인사도 없이 다녀가니, 現地중역들은 새틈에 끼여 난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날 野口씨가 무슨 꿑꿑이 속이었는데, 殖産局 간부 전원을 저녁에 초대하기에, 소장 이하 中試 간부도 陪席의 榮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단한 宴席에 자리를 割當한 것을 보니, 課別로 되어 있어, 課의 上席은 당연히 課長, 그러면 次席이 소장이 됩니다. 官位로 보면 소장은 局長과 同格인데, 아마 屬官이 주축과 머리를 짜서 마련했을 터이니, 새삼스럽게 군소리를 하는 것도 짐작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던 중 一同 기립한 가운데를, 술로 얼굴이 붉은 젊은 課長이 불쑥 헤치고 着席, 그래서 소장도 착석입니다. 이는 官制에 課가 所의 사무를 管掌, 이는 所에 대한 中繼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課가 所의 主人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권한을 確立, 鞭대를 보여야 할밖에. 課長은 소장에게 결눈질하면서 『나는 이런 훌륭한 부하가 있어 기쁘다.』고 소

회를 털어 놓으면 陪席諸官員이 감동하는 체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危機一髮 여기서 격돌이 날 터인데 하고 긴장했는데, 소장님은 좀 낮을 붉히고 어름어름 미소를 짓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이 課長은 매일밤 料亭內에 묻혀, 그 결재 속도는 다른官員에는 어렵도 없고, 드디어 병을 얻어 사망했습니다. 그 술값 외상 갚는 데 오래 말썽이 생겼으나, 과원 등의 追慕는 이보다 더 오래 끌었습니다. 오만과 豪放과는 가끔 區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1940년이 되자마자 山村소장은 功名을 하직하고 退官, 靜岡에 隱居하여 餘生을 즐기고 天壽를 다하여, 전쟁의 참극도 못보고 돌아가셨습니다. 積善之家에는 반드시 餘慶이 있다는 옛말은 이분에게 맞는 것입니다. 나는 靜岡에 가 뵈온 일이 없으나, 소원들은 자주 들렀는데 그때마다 간곡한 안부를 전해 왔습니다. 學歷은 二高, 東大인 줄 여깁니다.

(15) 小山—德 所・校長

小山—德선생을 처음 뵈온 것도 1923년 봄입니다. 짝달막하고 다부진데다가 매서운 기운이 감도는 분이었습니다. 一高, 東大出, 학생들은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약간 豪傑 자세를 보이려는 때도 있어, 일찌기 『內鮮一體를 방해하는 도배들은 우리들 같이서 없애 버리자.』는 뜻의, 그리 좋지 못한 교가 비슷한 것을 교우회지에 실어, 조선학생들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空空洞이라는 號로 俳句도 妙境에 이르렀다는 選評을 들은 바 있으나 나는 전혀 이해 못합니다. 戰爭중 루즈벨트대통령을 緩禪居士라고 翻弄한 것도, 이마 大衆잡지에서 나온 것이겠으나, 좀 失當이 아닌가 느꼈습니다. 사실인즉 나는 습기 많은 福岡에 있을 때부터 아주 느슨한 越中잠뱅이 전용입니다. 緊禪은 戰國時代의 유물인가 여깁니다만, 지금도 이제 아니면 기분이 긴장안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모두 팬츠지요.

선생님은 아마 학생적에 柔道도 좀 하신 듯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가 죽는 일도 있었읍니다. 선생님의 採點은 正確하여 결코 잘 주는 편

은 아니나 맵지도 않습니다. R군은 뚱뚱한 겹뽕고, 눈알이 그리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까져서, 첫 인상으로는 섬뜩하나, 사실인즉 아주 온순한 생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의 점수가 이 친구의 예기한 바와는 반대로 落第點이어서, 저녁때 歎願코자 갔읍니다. 歎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밤중이라 나가래도 머뭇머뭇 어름어름하고 안움직이니 야단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 성격이 원래 느림보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간신히 돌려 보내고 다음날 선생님은 나를 부르셔서 어쩌면 좋으냐고 의논을 하셨습니다. 내가 장본인을 불러서 이야기해 보니 아무런 일이 아니며, 회중短刀 같은 것은 본 일조차 없는 순진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도 한주일이나 歎에서는 戒嚴, 조심은 피차간 해롭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그턱에 再試로 구조되었습니다. 相貌가 좋지 못하면 손해가 나기도 하나, 이런 소득도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보통 모습이었더라면 留級은 틀림없었는데, 무사히 졸업하여, 稅關檢査長 등 일을 치렀읍니다.

선생님은 生徒監도 하셨는데, 생도에게 訓戒를 주는 데 능란하셨습니다. 차분하게 사리를 다하여 長시간에 걸쳐서 혼을 뽐는 데는, 동급생인 猛者 林健舜, 森田孝 兩군일지라도 겁을 뒀읍니다. 어느날 강의후 선생은 林君을 손짓으로 불렀읍니다. 林군이 새파랗게 질려서 論告에 나올 만한 일을 가다듬으면서 들어가 뵈오니, 예기한 바와는 판판으로, 용건은 高女를 갓나온 조카딸이 子女없는 선생 양주를 모시러 왔는데, 그녀에게 피아노 레슨을 부탁하는 것이 었읍니다. 林군은 구내에서 일등가는 器樂家였읍니다. 모두가 Schön을 林군이 독점함은 용서할 수 없어, 선생님 不在中을 틈타서, 그 레슨을 감독하려 갔읍니다. 이때에 놀란 것은 그 조카딸이 正確한 선생님 축소판임이 발견된 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곧 退散했습니다. 선생님이 子女는 없어도 조카딸이 있는 이상, 更田선생께서도 子女가 없으나 조카딸 짬은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방숙에 고이 간직할 수 있는 아까 아가씨와는 다릅니다. 기상이 활발, 길을 가로세로 휩쓸고, 학생을 보면 덮어놓고 말을 전넌니

다. 更田선생의 擴大版이니, 곧 알아볼 수 있지요. 두 아가씨가 모두 꽤 오래 효도를 하면서 살림을 배워서 귀국하여 출가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걸보기에는 아주 頑固어린 듯하나, 실상인즉 이와는 반대로 아주 人情에 약하고, 마음씨가 섬세한 분이었습니다. 내게 河村 幹雄, 君島武男 兩 박사를 소개해 주신 이도 선생님입니다. 河村교수는 福岡에서는 내 보호자 격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에 물들기도 해 보았고, 大道니 무엇이니도 엿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직원이나 학생들의 身上문제에도 걱정을 해 주는 분이어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의 보스 비슷한 모습을 뵈 때도 있었습니다. 총각시절에는 대단한 장난꾸러기여서, 여러가지 이야기거리를 남겼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오셔서 우선 中試에서 유리原料調査를 위시하여 窯業原料調査에 先鞭을 붙였습니다. 이 과제는 中試 요업부의 기본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의 영구적인 일입니다. 두 학교에서 學科長, 교무주임을 오래 지내시고 窯業, 시멘트 등을 강의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知見은 그때 얻은 것과 大差 없습니다. 그후 勅任교수를 거쳐 京城鑛山專門學校 初代校長, 얼마 뒤에는 中試,京工專 所·校長이 되었습니다. 취임교수가 된 때부터 코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高血壓증세가 진행하여, 소장 취임한지 몇 달도 못되어 病臥 數年, 드디어 재임중 관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命을 받들어 所務를 보았기에 장례에 제주가 되었습니다. 枕頭에서 조사를 기안하여 선생의 수제자인 岡本교수에게 이를 보이고 校閱을 부탁했는데, 내가 선생님의 총각시절의 호걸풍을 추념하여「...衣를 껴하여...」한 데서, 岡本선배가 沈吟數刻 주저했습니다. 나 역시 잘못된 줄은 알았지만 창졸간에 裂자를 까맣게 잊어, 字典을 찾아볼 겨를도 없어 그대로 淸書시켰는데, 한문에 능숙치 못한 그가 이 착오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戰況이 더욱 절박해져서, 부인은 우선 고향인 岡山으로 귀국했다가, 뒷정리를 위하여 돌

아오셨는데, 벌써 종전기의 혼란에 휩싸여, 아무것도 못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총망중에서 부인은 귀국하시면서 내 출세를 바라시는 생각이었는지 韓辰範씨를 통하여 선생의 유품으로 실크 해트를 맡겼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그즈음 나도 풍파에 휩쓸려, 韓씨가 보관한 채 써 볼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인즉 나는 1930년 以來 無帽입니다(公私一切). 요즈음 추운 날이나 하이킹 적에는 간혹 쓰기도 합니다만. 처음에 말씀한대로 나도 高血壓으로 혼이 났습니다. 선생의 養生經過를 음미하여, 醫師를 멀리하고 제 나름대로 치료해서 그렇저렇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醫師에 너무 의지하셨습니다. 두꺼비 기름이니 게르마늄이니 미역국 장복이니 대학교수의 엉터리 처방에 매달려, 특히 게르마늄 服用은 아마 선생의 天壽를 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科學者가 흔히 迷信에 홀딱 걸려드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지만, 늘 주위사물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京工專은 이동안 專任교장을 모셔들어 宿願을 풀었으나, 이도 아주 잠깐 동안에 불과하였지요. — 종전으로.

小山소장이 병와한지 얼마 안되어 玉井倚生 庶務課長이 병이 나서, 퇴임 귀향하여 곧 사망했습니다. 玉井군은 愛媛사람 中學校를 나오자, 시베리아로 튀어, 갖은 경난을 한 이니까, 尋常한 어머니 치마폭에 싸여서 자라난 팔자 좋은 패 들과는 다릅니다. 물론 결점 투성이지만, 事物의 要點을 삼아내고, 강한 추진력이 있어, 그 모든 것을 合算해서 中試로서는 쓸모있는 有功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小山선생이 소장이 되기 전에 갖은 惡評이 注進되고, 아마 전부터 性格上 싫어했겠으나, 또 어쨌든 歷代 소장이 소문대로 죄다 判官이나 귀머거리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洪水 같은 반대가 들어갔겠으나, 玉井군 없이는 밤이 새지 못하니 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나 역시 성격상으로는 그와 맞지 않았으나, 그래도 天涯에 알아 주는 자가 없는 터에, 그의 交誼를 좋다고 아니할 수 없는 心情이었습니다. 玉井군이 귀국할 무

렵 두자루의 日本刀를 내게 보내왔습니다. 白木 칼집인데 날뿔(swordguard)은 자세히 보면 金象箆이어서, 아마 玉井家에 由緒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아깝게 여겼습니다. 6·25사변중에 칼은 없어지고 날뿔만 남아, 적당한 기회가 생기면 도로 보내려 합니다. 이 유품이 눈에 띄면 故人보다도 내가 薄情한 것으로 反省됩니다. 나는 생각하는 바 있어 1940년 이래 骨董, 美術品, 古書 등을 좋아하기는 하나 일체 保存은 안합니다. 혹 入手되어도 감상후는 곧 흠어 버립니다. 물론 평생 書生으로 대수로운 것이 없었으나, 그래도 古書에는 가끔 그럴듯한 것이 있습니다.

(16) 田中重朗 所長 끝판의 中試

小山소장이 逝去해서 총독부는 잠시 동안 후임 인사를 주저하다가, 종래의 移入하던 慣例를 할 수 없이 깨고, 田中重朗 기사를 所長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人事는 電氣試驗所長이라면 모르되, 이곳과는 관계가 멀어서, 所나 本人이나 의외였지만, 요전대 官僚들의 장기놀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총독부는 東大, 高文 출신의 占有物로서 要職은 거의 그들 手中에 있는 것입니다. 技術系는 물론 사람죽에 못끼지만, 그래도 우선 東大인데, 저 綺羅星 같은 課長 중에 몇자리가 割當 — 專門技術者라고 해서 —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중 좀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이가 土木課長뿐, 다른 기술과장 같은 것은 꼭둑각시에 지나지 못합니다. 田中 기사는 東大 電氣科 출신. 좀 작은 키이나 알맞은 몸매에 단단해 보이는 모습, 목소리는 바스, 俊敏 精悍 똑똑하고, 그 眉間에 깊은 홈줄은 그의 벼슬아치살이의 노고를 나타내고 있는듯. 젊어서 벼슬길에 들어 치솟아 逋信局 第二電氣課長에 재빨리 도달했으나, 이곳이 지나긴 정류장이어서 發龍의 기회는 거의 없어, 결국은 좌천 待機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운수는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전쟁 북새통에 뜻하지 않은 승진이 된 것입니다. 나는 田中 기사가 과장 적부터 안면이 있어, 그저 서로 약간 好意를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行政 경험이 있는 田中 소장은,

前 所長들보다는 世上을 잘 알고 있어, 所의 운영은 常識的으로 아주 능숙하고도 원만하게 해 나갔습니다.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나는 官僚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관료 중에는 기분나쁘지 않은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가령 穗積國장도 그 하나이나, 내 대학선배도 되는 井坂圭一良 사무관은, 나보다도 尹균이 그의 팬이었습니다. 井坂선배는 듣기에는 政界의 強者인 貴族院議員의 만아들이라는데, 키가 크고 뚱실뚱실한 好男子이었습니다. 言語는 명석하나 좀 옛된 데가 있고, 大家집의 氣風을 이었는지, 대범하고 일체 個性을 노출 안하며 small talking의 名手이어서, 尹균은 그가 입을 땀긋하기 전에 벌써 웃어서 나뉘그러지는데, 나는 그저 멍하니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九大 應用化學科 교실에서는 가장 유명합니다. 그 까닭은 工場設計를 당시 曹達工業의 權威 西川虎吉 박사의 指導下에서 공부하였는데, 그 圖面 속에 건물 人口보다 큰 機械를 그려 넣어 크게 야단을 만나 卒業이 위태로웠던 탓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별로 우습지 않습니다. — 실제로 工場 속은 보통 그렇고, 만일의 경우에는 기계를 分解하거나 문뜰 뜰으면 그만이니 (이는 本人의 답변) 야단칠 것이 못됩니다. 어쨌든 井坂선배는 곰상스러운 工科에 진저리가 나서, 發憤하여 高文 파스, 비록 東大製 商標는 없어도 文武兼全 호랑이에 날개 돋힌 격이어서, 評判이 자자, 人氣 절정 중에 아깝게도 航空사고로 숨졌습니다. 나는 1년에 한번도 못되지만 만나서 吏道, 吏術 강의도 拜聽했으나, 지금까지 아직도 用兵의 기회가 없이 死藏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배로 轉向者 — 기술자들은 뭇 공론으로 方向을 바꾼 이들을 異端者로 취급하는데, 좁은 소견입니다 — 인 고 金大羽知事는 종전 직전에는 局長(學務?) 發命 風聞까지 떠돌았는데, 대단히 의지가 강하고도, 世波에 練達, 晩年도 平穩하게 지냈습니다. 人間の 스케일로는 井坂씨는 문제도 안되고, 出世도 물론 아래도리이지만, 그래도 나는 싱겁고 단순한 쪽이 이해하기 쉬워서, 같이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段數가 약

한 분이 편해서 좋았습니다.

얼마 안되어 종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내의 安靜에 힘썼는데, 다행히 평온하게 지났습니다. 이어서 맥아더 布告令이 뿌려져, 中試와 京工專에 自治委員會가 各各 結成되어, 내가 代表가 되어 兩 기관을 接收하고, 1945년 9월 하순에 軍政廳으로부터 所・校長에 任命되어, 두 기관을 再開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中試는 中央工業研究所로 改稱하고, 京工專은 서울大工大에 綜合되었습니다. 그리고 京工은 朴璋烈선배(專應化)가 接收 再開하여 서울公立工業高等學校로 改名, 現在에 이르고 있습니다.

玉井군의 後任 庶務課長 安田武雄씨는 키가 작고 똑똑한 기분좋은 청년이었는데, 일도 그늘없이 公正하게 해 나가는 성품이었습니다. 막판에 민첩하게 처신하였습니다. 玉井군과 절친했던, 성질이 급하고 팔팔한 朴貞奎군도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子女들은 모두 잘 지냅니다.

戰爭期에 中試는 戰時에 알맞는 일에 대처하는 자세에 그치고, 사실상은 平時 그대로의 업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아마 다른 기관도 다를 것 없었지만, 이즈음에는 科學技術을 어떻게 活用해야 좋을지 政府나 民間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口號는 대개는 헛소동에 지나지 않아서, 도리어 무의미한 消耗가 될 뿐, 아무 실효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의 業績으로는 工業用水調査와 窯業原料調査가 대표적입니다. 이것도 요새 보면 아주 不完全하다 하여도, 아물든 개척적인 의미로도 약간의 가치를 남기고 있습니다. 吉田기사는 꽤 단단히 해 보려고 준비를 했지만 中絶되고 말았습니다. 일이란 늘 지낸 뒤에 깨닫는 법인가 봅니다. 그것은 工藝입니다. 工藝部를 처음 開設한 目的은 輸出振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日本工藝나 西洋물건의 흥내를 내 보았고, 또 直効가 있음직한 것을 探索하였습니다. 차라리 모두 집어치우고 만데다가 한눈 팔지 말고, 그 全力을 民藝의 調査整理

에 投下했어야 했습니다. 熊田早苗기사의 樂浪漆器復原이나, 和田鴨江기수의 民間用金具수집 등 斷片的인 일이 있었지만, 그 때 그 일을 해냈으면 中試나 그 사람들을 不朽로 만들었겠는데 아까운 일입니다. 地域의 特性은 人間集團의 그 장소에서의 활동과 生活의 發露로서 時間에 따라서 변천합니다. 李朝殘影이 아직도 길게 잡히던 시절에 이것을 모아 두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거의 흩어져서, 그 수집에는 막대한 노력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在職者 명부를 보고 우선 作故한 분이 많은 것이 눈에 띄니다. 石井, 廣谷 두 선배의 서거는 매우 섭섭합니다. 廣谷種次기사의 人品은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은 出世결과는 어긋나는 법입니다. 내 초빙이 그 분의 殘年을 언짢게 만들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佐伯節雄기사는 阪大卒, 내 선배인 船久保英一교수의 주선으로 와서 分析부문의 新用을 높였습니다. 新井英一, 賀部勝美 兩군은 내 좋은 학생이며 동료이었는데, 新井군의 分析은 매우 정확한 솜씨였고, 出征中 歪詩 약간편을 보냈으나 보았는지 모르겠고, 賀部君은 아주 순진해서, 언젠가 함께 市中에 볼 일이 있어 나갔을 적에, 내가 아주 구경을 좋아하는 성미여서, 가게 앞에 놓인 진열품이나 어린이 장난감, 마지막엔 말뚝 누는 모습 등에 정신이 팔려서 지체하고 있으면, 우스워서 길거리에서 소리쳐 웃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龍谷初枝, 近藤陽, 近藤嘉子, 前田正子, 河野晴子 여러분들 아직 젊은 한창때에, 그리고 龍谷군, 河野군은 내 조수로 고생도 많았었는데, 그의 남편 龍谷교수의 한탄도 듣기에 민망합니다...

村松宗次기사와는 꽤 오랜 交分이었습니다. 京工서 동료, 그리고 中試서도 자별하게 지냈습니다. 부인께서 건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先生은 오랫동안 喘息으로 고생하셨으나 테니스 등으로 병을 이기고, 退官후는 織物團體에서 근무, 귀국후도 活潑하게 事業에 종사하셨더니 안되었습니다. 遊興에도 능숙하여 나는 가끔 따라가서 流行歌를 첫머리만 배우기도 했음

니다.

藤村彦四郎工藝部長은 서울서도 건강한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中試서는 異色の 存在로서 가끔 中試답지 않은 故事 등을 꽤 오래 주고 받았습니다. 小山소장의 病中, 그리고 전쟁과 工藝와는 죽이 잘 안맞아 苦戰했습니다. 그런데 蔡秉德少佐(그때는 富平造兵廠付, 終戰後 韓國陸軍中將, 總參謀長, 6·25사변으로 戰死)가 뜻밖애 찾아와서, 총개머리板 설계제작 등으로 그러저럭 지냈습니다. 熊田早苗기사는 훌륭한 체격인데도 逝去는 놀랍습니다.

松山祝, 三輪基治 두 部長은 같이 東大를 나온 수제였는데 아깝습니다. 戰時中 三輪기사가 正門앞 개천을 일구어 야채재배를 시도했으나 成功치 못한 일도 기억합니다만, 실은 재마 재배는 나는 自信이 있어 땅도 마련해 놓았으나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松山기사내외 분과는 1966년 여름, 東京서 만났었고, 그의 長男 景茂군도 가끔 찾아왔고, 미망인은 静岡에서 잘 지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萩尾季雄씨(旧姓 戸田)는 京都高等工藝출신으로서 中試서는 黃蔞의 氷醋酸 抽出을 시도하여 나와도 가끔 토론했으며, 報文 3편을 남기고 있습니다. 長瀬繁重군은 아주 얄전하고 또 일에 열심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大橋武夫, 田中耕一 兩部長은 어디로 갔는지? 두분이 모두 東京工大출신이며, 다 같이 行方不明이라니 이상합니다. 田中기사는 金屬酸化合物이 混入된 人絹을 연구하여 여러번 토론했지만, 그 보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松山기사의 알루미늄 연구보문도 분실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내 助手로 있었던 佐野千一군이 마침내 전출하고, 그 뒤를 역시 工學院 출신인 現田正男군이 이었습니다. 現田君은 큰 키의 好靑年이어서 가끔 庶務에 기술적인 일을 돕기 위하여 파견됐더니, 무슨 일이건 싫어 아니하고 잘 해내서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 父親은 東京上野池의 端이란 곳에서 九谷자기 그릇을 만드는 工藝人인바, 상당한 나이이었으며 전쟁중인데

도 아들을 보러 來往했는데, 戰死했으니 불쌍합니다. 父子의 情으로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은 水落實군입니다. 이 청년은 岐阜高農 優等졸업, 山本時二郎군의 후배로 입소했습니다. 山本군은 黃州의 果樹園경영자 穂坂씨의 위탁시험을 위하여 조빙하여, 蘋果汁에 관한 報文 2편을 남겼습니다. 이 사업은 그때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요사이 여기서는 사과즙, 사과술이 성업중입니다. 그런데 水落군은 내일을 돕고 있던 중에, 무슨 까닭인지 멍청해져서 아무리 주의해도 늘 허둥댁니다. 그런지 얼마 후에 퇴직하여 下宿에서 음독자살했습니다. 나는 죽는 사람을 꽤 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친척과 더불어 그 부모가 와서, 그 슬퍼하는 모습은 매우 위로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디서나 언제나 육친의 정은 다름이 없습니다만, 언제까지 이 풍습이 지탱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7) 學校의 여러분과

物理의 佐伯國治교수는 在職中 서거했습니다. 東北大출신 키는 작지만 스포츠로 단련한 단단한 건강체이나 병에는 못견디었습니다. 東北大서의 논문 別刷 등을 받으면서, 그 총총한 물리교실에서 가끔 오랜 대담을 즐겼습니다. 佐伯교수는 실험물리이나 막스 플랑크(Max Planck)의 物理哲學논문을 좋아해서, 나도 약간 그가 읽던 것을 들여다 보기도 했습니다만 죄다 잊어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플랑크는 상당한 名文이긴 하나, 그 철학론은 그리 生産的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기념사업인가가 있어 敬聖帝大와 공동으로 월급봉투를 털어서 大學路에 지금도 무성한 플라타너스를 심고, 구내에는 電氣시계를 두 곳에 걸기도 했습니다. 시계는 물리니 佐伯교수에게 그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수고 끝에 겨우 프랑스製를 주문해서 걸었으나, 얼마 안되어 고장으로 못쓰게 되었습니다. 학교상태에 크게 불만이어서 同志인 젊은 교수들의 代表격이 되어, 山村교장에게 대들기도 했지만, 急患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전임교장도 얻었으나 전쟁으로 그밖의 요구는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改革은 物的인 것에 앞서, 그 목적과 방법의 整備가 先行되어야 실현되는 것이어서, 몇 사람의 목을 갈아 보는 정도로, 官僚들의 腦組織에 變化를 일으킬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鑛山科의 谷口長一郎교수는 東大출신입니다. 이 분도 재직 중에 병사하였습니다. 谷口교수는 格式을 차리지 않는 분이어서, 그 희여멸건 큰 몸집을 흔들면서 온 방안을 울리는 웃음소리는 듣는 이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줍니다. 사환을 귀여워하고 日給일꾼들에게는 최고의 人氣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댁에 거들 일이 있어 가면, 그때는 귀중품이었던 外製위스키를 큰 컵으로 먹이니, 모두 가고 싶어 했지요. 대단한 활동가여서 金鑛의 選鑛과 製鍊에 관한 책을 썼는데 꽤 잘 팔렸습니다. 그즈음 그 化學부문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기엔, 나는 浮遊選鑛試藥의 表面現象, 極性, 接觸角 등과 分子構造관계를 꽤 재미있게 여기고 그 全量이 주로 미국서 수입되어, 미국화학초록에는 이런 목적의 새 化合物이 넘칠 지경이기에, 北海道大 化學科 출신의 고 米城孝治군과 朴政煥군에게 그 예비연구를 착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谷口교수는 허무하게도 서거하고, 米城군도 병이 나서 고향을 내왕하다가 죽고, 金鑛부도 식어서, 3 편의 보문으로 이 일은 中絶되었습니다.

수입浮選劑의 大宗은 처음에는 pine oil이었는데, 이것은 미국서 소나무나 송진의 蒸溜제품입니다. 이는 資源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 나는 松根油의 分溜에 着目했습니다. 전쟁으로 石油문제가 급박해지자 代用燃料가 연구의 主流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 적부터 흥미를 가졌던 石油轉換문제에 착수하여 油脂系의 cracking(熱分解)과 ester 交換을 시도하였고, 고 田中牛司씨에게는 油脂系유탄유 제조연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魯益煥군에게 油脂系나일론 合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山村소장의 말사위였던 農林局의 古賀기사가 이

松根油에 눈독을 들여서, 이것을 휘발유에다 섞어서 자동차를 굴리고, 총독에게 보고해서 큰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간단하지요. 日本이나 조선도 소나무 나라 — 이는 小學校 日本語 교과서에 있습니다 — 그러니 소나무는 무진장, 그리고도 木材를 찍어 낸 松根은 山에는 얼마든지 있는 廢品, 폐품에서 石油가 나온다. 이런 솔깃한 이야기에 총독님이 흥분하여, 국민운동을 일으키고, 責任供出이 명령되었으니, 민중의 고통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狂亂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되레 야단을 만났습니다. 이 소동은 종전으로 겨우 가라앉았지만, 그 뒤치닥거리에 몇해 걸렸지요. 또 좀 小規模이지만 日本까지도 이 소동이 퍼졌다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요즈음 石油의 代燃문제는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提案은 많은 것이 종전에 생각했던 일을 재탕한 정도여서, 과연 人智의 限度를 탄 식케 합니다. 아뵤든 人氣策이나 浪費의인 짓을 되풀이 말고, 차분하게 根本의인 해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眞能義彦교수는 2년쯤 出講했으니까 아는 분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호리호리한 대단한 近眼. 工科에는 없는 文化의 향기가 감도는 분이 었지요. 독일문학 전공으로 바그너(Wagner)의 歌劇 이야기, 베르그송(Bergson)의 創造的 進化 해설 등, 지금까지도 이 분야에 대한 內理解는 그때 들은 풍월에서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급생 중에는 몇 사람의 心醉된 열심과 를 뵈었습니다. 工科에도 이런 교수가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얼마 안되어 醫專에 빼앗겼습니다.

齊藤幸太郎교수는 藏前 졸업후 미국에 가서 紡織實務경험을 쌓은 분입니다. 綿紡이 전문으로 오래 紡織科의 과장, 아주 통통하게 살이 찐 개방적인 분으로 알콜中毒이었습니다. 앞서 公式연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先生은 하고 싶은 테이بل 스피치의 기회가 없을 것이므로, 언제나 도중에 뛰어나와서 한마디 안하고는 못배

기는 성미입니다. 그리고 여흥은 꼭 유치원 노래와 춤이어서, 친구들이 실수를 서지르지 않도록 말려도 막부가내이었습니다. 졸업생을 만나면 막걸리를 가장 즐겼습니다. 물론 無骨好人이었지요. 종전이 된지 며칠 후에 관사에서 장모와 더불어 자살했습니다 — 아마 수난기에 가족들에게 폐를 덜기 위해서 비장한 결심을 한 것이겠지요.

正來遊方선생은 齊藤교수의 先任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硬骨稜稜 上司와 맞지 않아서 사임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학교 뒤에 있던 染色組合(지금은 교회) 理事로 와 계셨습니다. 京都大출신인가 합시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中試나 학교에 늘 오셔서 다소간 시간도 담당하였습니다. 그즈음 나는 日曜日이면 内外 동반으로 郊外에 나가서 낚시를 즐겼는데, 문득 선생과 마주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선생은 가족을 고향에 두고 홀몸으로 오셨으므로 매우 적적하신 탓이었는지, 많은 제자와 친구가 있었는데 자주 나를 불러 바둑도 두고 잡담도 했습니다. 전쟁전에 組合이 개편되자 후임으로 村松선생을 앉히고 훌쩍 떠났습니다.

市村定교수는 오래 土木科長과 교무주임을 지낸 분입니다. 많은 화제를 남긴 奥田定一郎교수의 후계자격입니다. 이 분은 아주 건장한, 東北 사투리가 대단한, 깔끔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實務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 무슨 부탁을 하면 도박도막 최단시일내에 결말을 지워 줍니다. 이런 점은 그저 학교에서만 자란 사람으로는 꿈도 못꾸지요. 工業用水調査일로 내게 村田英一가사(專士)를 소개한 것도 이 분입니다.

川平惠達교수는 機械學과 法學을 겸수해서 크게 손해를 본 분입니다. 아주 온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분이 살던 내이 바로 내집 앞이어서, 조석으로 눈에 띄는데 人亡物存의 感傷이 생깁니다. 나는 이 분에게서 機械製圖를 배웠는데 1년 동안에 불 베어깅 한장, 베벨齒車 한장, 합

계 2장으로 합격 점수를 받았으니 부지런한 학생이 못되나, 그저 입맛만 쩍쩍 다시시고 꾸지람은 없었습니다. 그후 동료로 오래 상종하였는데 웨일인지(아마 부전공인 法學 때문) 학교 당국의 대우가 출렁출렁했지만, 선생은 개념치 않고 체념 또는 달관하는 눈치였습니다.

小河弘道교수는 建築科長을 오래 지낸 아주 건장하고 사투리가 지독한 분이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구내출신으로는 최장수자이었는데,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100살을 채웠을 것을 아깝습니다. 伊藤清선생과 더불어 工科에서는 드문 휴머니스틱한 면이 있었습니다.

大森貢一 鑛專교장은 德島高工에서 영전해온 東大출신, 키가 큰 쾌활하고 사람을 당기는 분이었습니다. 鑛專의 건축이 늦어져서 꽤 오래 東崇洞에 체재하게 되어, 가끔 快談을 즐겼습니다.

平壤高女에서 化學을 担任했던 米谷榮松교유가 있었는데, 오랜 직원록에는 늘 中試 점임기사로 이 분의 이름이 실려 있으나, 아무도(三山소장 외에는) 얼굴을 본 이도 없고,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듣기에는 총독의 친지로 이름을 걸었으나, 三山소장이 문을 잠가버렸다는데, 落下傘인사의 부조리는 彼此간 불행입니다.

京城帝大豫科에서 化學을 담당하고, 잘 팔린 교과서를 낸 津田榮교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朝鮮化學會에서 강연했을 적에 한번 만났을 뿐이며, 매우 진지한 학자로 여겼습니다만, 아마 日蓮宗 독신자이어서 社會事業에도 相當히 열심으로 종사하였고, 그때의 동지도 남아 있으나, 方向이 문제였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요.

또 城大豫科 生物學교수이었던 森爲三박사는 京城中에서 오래 교편을 잡아, 많은 門生을 輩出했습니다. 中試의 森美智子군의 친부로서 父女의 정이 지극했습니다. 명부에서 그 따님 健在를 보고 安心했습니다. 森박사의 著書「朝鮮植物名彙」는 京都大의 中井猛之進교수의

「朝鮮의 植物」과 더불어 여기서의 古典이 되고 있습니다.

京城大學의 化工系 諸先生은 孔陵洞에 옮길 때까지 東崇洞 假校舍에 들었어서 꽤 往來가 있었습니다. 더우기 學會관계도 있어 山家信次총장을 비롯하여 岩瀬一, 藤岡忠夫, 高橋武雄, 向井參之充, 石橋弘毅, 村上惠一 등 제교수와는 다소간에 면식이 있습니다. 종전후 퇴역 海軍中將 山家총장이 京城大 初代총장 안스테트 海軍少領에게 事務인계를 하던 광경은 冷情, 鄭重하여 感慨가 깊었습니다. 岩瀬교수는 한국광물의 分光分析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종전 직전에도 광물채집을 위하여 山野를 거닐고, 그 귀로에는 고무마를 뺀에다 지고 오던 모습이 선합니다. 高橋교수는 東京工業試驗所 적에 만났었고, 向井교수 夫妻는 大學선배이며 恩師이어서, 늘창 속을 털어 놓고 彼此 상의하였습니다. 崔漢石, 南基棟 二 제자를 소개한 것도 이분입니다. 귀국후 양주분이 모두 逝去하셨다하니 섭섭합니다. 中試 三輪기사와 동기인 村上교수는 귀국후 東北大서 合成雲母 등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石橋, 高橋교수의 저서는 가끔 읽습니다.

城大豫科 강사였던 블라이드(Blyth)씨도 돌아갔습니다. 그가 英文으로 낸 佛教古典集은 未完成인데, 無門関 등 영역본은 지금도 가끔 넘겨 봅니다. 서울 妙心寺에서 華山大義老師한테 禪을 배운 듯합니다. 블라이드 강사가 서울에서 쓴 英文學과 禪도 華山師의 지도가 들어있는 듯하나 視野가 좀 좁아서 어떨지요. 華山師는 인텔리스님이어서 아주 개화한 분으로 好感을 가졌었고, 종전시 혼란으로 西川교수와는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스님의 先任주지이었던 後藤瑞巖老師는 禪으로 굳은 듯한 두려운 스님이었습니다. 長沙洞의 妙心寺는 지금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는 필딩街로 변했습니다. 그 한국식 건물은 李朝 최후의 皇后 尹大妃의 生家입니다.

1941년 전쟁이 크게 벌어지자, 理科敎員 養成

所가 京工專에 급살탕으로 附設되어, 西川교수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 졸지의 일이라 교수가 없어서 나도 한학기 정도 出講했습니다. 이 기관은 얼마 안 되어 京城帝大에 이관되어, 京城農業學校자리(現 淸涼中學校)로 옮겼습니다. 겨우 몇해 안되는 짧은 동안이었으나, 상당한 英才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中試의 女子技術員 養成도 전시의 산물입니다. 그전에 양성해서 성공한 例는 女子로는 機業강습뿐, 남자는 분석의 金樺林군 외 몇사람, 포함 10人 내외에 지나지 못합니다. 女子技術員 養成의 發端은 依賴分析試驗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전부터 工場에서는 女子가 분석실에서 많이 일하기에, 이 일을 시작해서 꽤 도움이 됐으나, 자라서 제법 力量을 내기 전에 종전으로 中絶되었습니다. 현재의 工業試驗院에는 女子간부가 꽤 활동하고 있어, 여기 출신으로 大學교수로 진출한 사람도 몇사람 있습니다.

韓國人 직원 중에 最古參은 교무의 韓辰範씨입니다. 키가 크고 웃기 잘하지요. 工業傳習所 출신, 상당한 風流人으로 놀기는 좋아하나, 藝能은 없고, 술은 아주 自制했습니다. 故事와 人事에 정통하여 쓸모가 있었지요. 종전 전에 全南 咸平郡守로 전출했다가 그만두고 돌아와서, 서울工高 同窓會長, 서울大工大 同窓會 간사로 분주히 지내고, 말이 넓어서 결혼소개도 많이 하다가, 80세를 넘기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가는 오랜 이는 사진실의 姜世馨씨입니다. 兄弟 3인이 모두 京工專 관계자지요. 가운데가 守衛, 막내가 姜禹馨군 京工專 紡織科출업입니다. 世馨씨는 일찌기 土地調查局에 있다가, 宗像씨와 알게 되어, 같이 학교로 옮겼습니다. 술 속에 아주 빠진 사람이어서, 젊어서는 그래도 별고 없었지만, 나이먹은 후에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내가 姜씨집 옆에서 살았을 때에, 어느날 저녁 연회가 있어서 같이 나갔다가, 나는 먼저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이

뜰날도 안와서 큰 소동이 나서 찾아 보았으나 헛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숙해서 진흙 투성이 팬츠바람에다가 全身 상처를 입고, 귀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까닭인즉 연회후 나와서 술집을 돌아다니다가 청계천 5가에 있던 마전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취중에 일어나 下水道を 큰 길로 여기고 헤매어, 三清公園을 낙타산 제집 근처로 알고 올라갔습니다. 날이 새서 꼴을 보니 도리가 없어 숲속에 숨었다가 밤을 타서 커다란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우 守衛분은 아주 영악한 분입니다. 三山소장 때 무슨 일로 꾸중이 내렸는데, 그전부터 소장 이하 간부의 행동을 꼼꼼하게 日記帳에 기록한 것을, 눈 앞에 들여대고 反擊으로 나와서, 모두 기가 막혀서 호지부지되었다 합니다. 평소에 사람을 바보로 대접하면, 자기도 바보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1930년 경에 집안에 좀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러한 격렬한 기상이어서 慨然히 머리를 깎고 桑門으로 들어가 雲遊, 간 데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羅益榮교수와 李海根선배 이야기는 前號 參冥神遊錄에도 좀 썼으므로 생략합니다. 崔允植교수는 東大卒, 京工, 京工專, 鑛專에서 교편을 잡았으니, 東崇工業會員들은 모두 잘 알 것입니다. 平素의 울분을 터뜨릴 데도 없고, 한잔 하면 『나는 最음食이다.』라고 호통을 뽐지만, 愛酒이긴 하나 酒量은 대수로울 것 없어, 그 섯님형태를 초월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종전후 京鑛專 교장, 서울大文理大 學長을 歷任하고, 많은 各級 數學교과서를 써서 한때 全國을 휩쓸었습니다. 집필하다가 卒中으로 急逝하였습니다. 美人의 평판이 높던 부인은 건강하시고, 次男이 서울大 수학교수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토록 애 쓴 교과서는 저자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졌습니다. 그야 내 것도 정년이 되자 안팔리는데, 그래도 현 책사에서 먼지를 먹다가 휴지 공장으로 들어가는 꼴을 안보는 정도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朴東吉교수는 85세, 李均相교수는 77세로 모두 건강합니다. 金源澤박사는 漢陽大교수로 현

역입니다. 鑛專의 李時鉉, 金勇虎, 丁根균들은以北입니다.

中試서 일한 옛 한국인들 중에서 作故한 분으로는 朴璋烈, 權錫圭, 張翼鉉, 襄相彥, 尹柱福, 河相七, 張基命, 劉仁烈, 白潤邦, 金鍾元, 朴準鎬, 金瑾熙, 崔景德, 崔亨洵, 姜貴男, 崔奇男, 拉北된 분에는 安鎬俊, 安利泰, 洪性俊, 魯益煥.

現存으로는 卞榮億, 吳在環, 河泰燮, 朴政煥, 韓容錫, 李範純, 朴英圭, 金珏中, 金椿林, 金燐秀, 金箕淹, 裴弼容, 崔漢石, 朴政煥, 金再權, 禹鳳金, 崔俊植, 金水快, 白泰元, 朴容弼, 韓容煥, 姜永秀 諸氏로서 各分野에서 活動하고 있습니다.

不明으로는 俞鎮旭, 金泰鎬, 尹彥植, 金泰昊 씨로서, 모두 생각나는대로 無順입니다.

이야기가 종말에 가까왔기에 이제껏 쓴 것을 훑어 보면서, 나는 이렇게 줄곧 잘 지내고 여러 사람과 사이 좋게만 지냈는가 自問하여 보았습니다. 그런 人間이 있을 수는 없고, 自己에게 재미없는 것은 잊기 쉬운 법입니다. 이런 양금을 끌어내면 限이 없습니다만, 한두개 시도해 보지요.

어느날 밤에 내 생도이며 동료인 X군이 술이 지나하게 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다짜고짜로 호통을 쳤습니다. 『선생님은 안됩니다. 선생님은 八方美人이지요. 그 꼴로는 선생 자격이 없소. 사직하십시오.』 붓집을 못할 형편이어서, 나도 自省하면서 밤새도록 그 非難을 듣고, 그 대부분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끝막에 나는 『자네, 순하게 한다 해서 비겁한 것은 아니라네. 일이 귀중하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사직은 안하겠고, 차츰 자네도 해 보면 알 걸세. 한잔하고 가게.』 한마디만 했습니다만, 꽤 군색하고, 또 제법 자주 있던 일입니다. 이런 공격은 내게는 새로운 勇氣를 줄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 나는 매개 아침과 저녁에 각 10시쯤

出退勤했습니다. 軍國主義가 점점 심해져서, 出勤簿를 소장실에다가 놓고 定刻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내 일과인즉 아주 무질서합니다. 오후 4시까지의 손님상대이죠. 그 후에 일 시작이니, 아침이 늦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부는 白紙일 뿐, 소장이나 서무과장이나 사정이 그런 이상,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官規를 세우기 위하여 승급을 정지하고, 상여금은 半으로 줄여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경황없이 지내는 어느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세수도 하는둥 마는둥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목 언저리가 따끔거려서, 일어나서 만져보아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씻고 잤는데 아침에 출근했더니, 또 아픕니다. 이상해서 목도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목은 황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몹시 미웠던 모양입니다. 部員들이라 했자 거의 모두가 제자벌이니, 벌 도리가 없어 목도리를 싸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똑같은 새 것과 갈아서 두르고, 모르는 체 했습니다. 그 목도리는 세탁했더니 녀마갈이 구멍이 났습니다. 이 장난은 단 한차례뿐이었습니다. 아마 한번 혼내 주고 만족한 모양입니다. 글썄 이런 일로 야단을 쳐도, 증거를 삼을 수도 없으면서 제 얼굴에 침뱉기니, 이것도 좋은 敎訓으로 여겨서, 더 정신차리도록 했습니다.

(18) 그럼 마감으로

世上에서 變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變치 않는 것이 있으니까 변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말장난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있었던 일 그 自體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不變입니다. 다만 變者가 이불 되돌아볼 적마다 그 樣相은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33년 동안 있었던 中央試驗所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日本을 위한 朝鮮의 開發을 목적으로 만든 기술기관으로서, 이 기관이 日本을 위해서는 대수로운 것이 못되었으나, 朝鮮에는 얼마간 쓸모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는 이 속에 묻혀서,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도, 장래에 떠오를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흘러간 過去는 否定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結局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보다는 나올 수도 있다 하여 그 位置附與와 價值評定이 어떻게 變하든간에,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살아나간 우리들은, 그 지난 일을 좋게 받아들이고, 이 果實을 귀중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京城工業學校는 39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이는 韓國의 技術人力 開發을 위하여 세워졌고, 그 목적은 不完全하나마 遂行하였습니다. 途中에서 日本人의 比重이 거꾸로 되어, 당초의 計劃이 變貌하였으나, 어쨌든 상당한 기술인을 양성했습니다. 企業人도 조금은 났습니다.

京城工業專門學校의 29년간의 成就是 이들 세 기관중 最大입니다. 물론 이는 日本人을 위하여 세워진 高級技術人力 開發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表面上으로는 무슨말을 꾸며냈는지 조선사람은 여쭙으로 덧붙이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入學志願者와 入學生의 比率을 보면 곧 分明할 것입니다. 入學生의 韓日人 比率 1:3의 不文律을, 그리고 이를 꾸미기 위하여 여러가지 트릭(그 代表的인 것은 꽤 까다로운 日本語시험이지요)을 시도해 온 것도 明白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서 나온 人力은 日本으로서는 대수롭지 않았지만, 韓國에 대하여는 決定的인 役割을 한 것입니다. 1970年代에 이르기까지, 이 人力이 韓國技術의 主流를 이룬 것을 누구도 否認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國務總理도 나고, 國會議長도 났습니다. 屈指의 詩人도 나고, 큰 회사의 社長도 났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큰 부자는 없었습니다. 學者나 큰 技術事業을 해 낸 사람도 꽤 있습니다. 嚴密하게 따진다면 그 後身은 아니나, 그 發源에서 이루어진 서울大學校工科大學(同窓會는合併되어 있습니다)은 現在까지 韓國技術界의 支配的 役割을 해 왔으며, 앞으로는 여러 새學校가 자라서 급속하게 平準化되겠지만, 그 質的 優位는 當分間 持續될 것입니다. 또 新興 학교

들의 생성도 서울大工大의 人力의 뒷받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나는 東嶺洞을 찾아서, 構内를 돌아다녔습니다. 나의 靑春이 묻힌 이 땅에, 여름철에 무성했던 풀은 벌써 시들어 秋風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쓰던 建物은 난잡하게 여기저기 남아 있으나, 옛날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져 모두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몇 해 안에 새 建物이 들어서고, 새 사람이 드나들겠고, 여기가 이전에 무엇이었던지도 잊어 버려질 것입니다

다. 혹시는 好事者가 있어, 일찌기 이곳에서 詩想에 침잠했던 李箱(金海卿 專建)의 詩碑쯤 세우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으나, 이런 것조차도 時間은 지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생겼던 일은, 마치 微生物의 胞子가 받은 突然變化처럼, 胞子가 그 斑痕을 띠고 擴散하듯이, 隨時 隨處로 轉換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追跡은 비록 神遊일지라도 미치지 못하나, 이 韓國 近代科學技術을 導入, 移植한 場所가 바로 이랬었다는 그 自體는, 時間도 이를 소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끝 1980-10-31)

參宴神遊錄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2 권 제 1 호 pp. 107-120

正誤表

페이지	行	誤	正	페이지	行	誤	正
107차	6	榮在義	楊在義	117차	末	翼(	翼 東紡社長(
108우	10	病 若	病 苦	117우	1-2	金……氣)	삭제
109차	3	를 시간	를 京工專에서 시간	117우	7	金孝	金孝
109우	4	羅景錫도	羅景錫용도	117우	20-21	植物)	植物), 車廣恩 自營
109우	末	翰화장	翰全絳琳부회장				(東京高工 應化)
110차	6	岸 署	岸 曙	117우	下16	尹燕憲	尹婁憲
110우	28	命 嗣	令 嗣	117우	末	(東京工大	(東京
111우	21	化学誌	化学雜誌	118차	4	(工業伝習所	(京工
111우	23	은	은	118차	6-7	吳…(東京物理	吳秉鎬(日本宇部高工
111우	26	梁	梁	118차	7以下	物理)	機械)
111우	下2	金樹濟와	金樹濟복자와				金後植 漢陽大교수
112차	下8	간후	잔지				(日本鉄道, 電氣)
112우	15	微	微				鄭泰河 京電理事
112우	下18	窯業	窯業, 染織				(미국 化学)
112우	下14	鄭……(미국)	삭제	118차	下14	中の	中(藏前 染織)의
112우	下2	旻	旻	118우	10	漬楚한	漬楚하고
113우	11	趙應河	趙廣河	118우	14	待疾	待疾
113우	17	化学	染織	119차	下3	는데	는데 퇴직후 낙향했다.
114차	18	호리	호리 호리	119우	2	물천지	물안지
114차	下6.5	植物学	食品營養学	119우	5-6	나는	매마침
115차	20-23	내가……다.	삭제	119우	14	로세스터	시라퓨스
116우	末	내 나니	내 나니.	119우	15	회 득	직 득
117차	下5	光元	光云	120우	下2	-10	-11